

2019  
문헌세가  
학술대회

근현대기  
호남 유학자의  
강학활동  
- 敬窩 嚴命涉 -

**2019. 12. 20.(금) 13:30**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1층 세미나실



# 목차

[발표 1]

敬窩 嚴命涉의 守道的 儒學繼承과 心修養 ..... 3  
이형성(전남대학교)

[발표 2]

敬窩의 憂患意識과 修己復禮 ..... 21  
이은혁(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표 3]

경와 엄명섭 삶과 활동들에 대한 고찰 ..... 41  
김기림(조선대학교)

敬窩 嚴命涉의  
守道的 儒學繼承과  
心修養

이형성(전남대학교)

# 敬窩 嚴命涉의 守道的 儒學繼承과 心修養

이형성 (전남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 立志讀書와 聖學
3. 守道志向의 編書著述
4. 性師心弟說 繼承에 의한 心修養
5. 맺음말

## 1. 들어가는 말

19세기 중기부터 서구 열강들은 자국의 이권과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동양에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조선은 그 열강들의 침략으로 내외외환을 겪게 되자 쇄국정책을 펼치며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정치·사회·문화적으로 큰 충격과 시련 속에 조선의 대응방식은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였다. 특히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꾀하는 일본의 숨은 침략 정책을 조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재야의 유학자들은 이를 직시하고 서구문명의 도전에 대해서는 ‘척사위정(斥邪衛正)’으로, 일체의 강점에 대해서는 ‘국기수호(國基守護)’로 대처하였으나, 그 힘은 미약하여 결국 망국(亡國)의 길로 나아갔다. 나라가 일본에 병합되었어도, 적지 않은 학자들은 교육을 통한 유학의 부흥과 그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최근 학계의 근현대 유학 연구는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여 그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경와(敬窩) 엄명섭(嚴命涉)의 수도적(守道的) 유학계승(儒學繼承)과 심수양(心修養)을 다루었다.<sup>1)</sup> 엄명섭은 전남 곡성군(谷城郡) 입면(立面) 금산리(金山里)에서 1906년에 태어났다. 본관은 영월(靈越: 柵城)이고, 호적명은 수동(受東), 자는 성술(性率), 호는 호산(壺山)·경와(敬窩), 한말유민(韓末遺民)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보(溥)로 개명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조부 엄일령(嚴日令)과

1) 敬窩 嚴命涉에 대한 최초 연구논문은 이은혁의 「敬窩 嚴命涉의 學問과 思想」(『艮齋學論叢』 제23집, 2017년)이다. 주요 내용은 “生涯와 學問의 연원”, “反求와 知行合一의 修身”, “忠信篤敬의 실천”, “自戒와 敎學의 실천”, “艮齋思想의 이해와 전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친 엄주용(嚴鑄容: 1871~1941)의 충신독경(忠信篤敬)에 힘입어, 향리의 소송(小松) 진형봉(晉瑩奉)에게 『소학』과 『통감』을 익히고, 율암(栗菴) 이기림(李起林)에게 『맹자』 등을 배우며 학문적 입지(立志)를 세웠다. 그 뒤에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sup>2)</sup>의 학통을 이은 두 문인, 죽사(竹師) 장병희(張柄晦: 1871~1941)와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 1874~1957)에게 나아가 호학열(好學熱)을 발휘하였다.

장병희는 곡성 장선리(長善里)에 태어나 26세 때 학문을 뜻을 두고 남원의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 1850~1900)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혔다. 신득구는 고산(孤山) 임헌회(任憲晦: 1811~1876)의 학통을 이은 학자로, 쇠잔해지는 국력을 차마 볼 수 없어 자결하였다.<sup>3)</sup> 장병희는 31세 때 전우에게 『대학』을 익힌 뒤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1910년 강제병합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일인들이 실시하는 호적 거부로 큰 고통을 당하였으나 끝까지 거부하고 일인 헌병까지 죽이려 하다가 살려주니, 스승 전우는 대한 제일의 의사라 일컬으니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였다.<sup>4)</sup> 최병심은 청하(靑下) 이병우(李炳宇)에게 배우고 24세 때 충청도 태안(泰安)에서 강학하던 전우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힌 후, 전주 향교 중심으로 유학사상을 진흥시키며 일인(日人)에 항거하였다.<sup>5)</sup> 장병희와 최병심 두 학인은 간재학파(良齋學派)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유학사상을 크게 고취시켰다.

엄명섭은 정훈(庭訓)에 힘입어 강직하고 온화한 성품을 배양하며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다가, 20대 무렵 장병희에게 시서(詩書)를 배웠다. 당시 스승은 『중용』 주장 “솔성지위도(率性之謂)”의 “솔성(率性)”을 자(字)로 지어주었으니, 순전한 본성 발현을 통해 학문이 일취월장하기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광복 이후, 41세 때 전주에서 강학하던 최병심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았는데, 당시 최병심은 『논어』의 “독신호학 수사선도(篤信好學 守死善道)”<sup>6)</sup>로 이끌었다. 스승이 죽기 전까지 지근에서 간재학(良齋學)을 통해 유학의 이념을 지키면서 도덕적 수양과 그 인격을 연마하여 자기실현에 힘쓰는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나아갔다. 특히 일본의 가혹한 탄압 시기에는 적극적 투쟁보다는 유교적 실천과 이념 배양에 노력하였고, 광복 이후로부터 2003년 향년 98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하기 전까지는 전통적 유교교육과 경전언해에 힘쓰며 유교적 사상과 문화를 재건하는데 모든 삶을 바쳤다.<sup>7)</sup>

그 동안 우리 학계의 연구는 조선시대 유학자나 내외환의 시기에 활약한 애국계몽주의 학자들에 치중하였다. 이는 한국학 연구에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선현들의 정신적 유산인 문집을 영인하게 되었으니, 그 대표적 총서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과 『한국역대문집총서(韓國歷代文集叢書)』이다. 덧붙여 각 지자체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문중에서의 선조 문집 발행은 지역의 문화와 사상 이해뿐만 아니라 한 집안 가학(家學)의 양상도 엿볼 수 있는 토대를 주었다.

2) 田愚는 栗谷 李珥(1536~1584)에서 宋時烈(1607~1689)과 金昌協(1651~1708)을 거쳐 任憲晦(1811~1876)로 이르는 畿湖學派의 주요 학통을 계승하며 전구의 수많은 제자를 훈도하였다. 당시 心을 理로 간주하는 성리사상에 맞서기 위해 ‘性師心弟說’과 ‘性尊心卑說’ 등의 학설을 제기하였다.

3) 송준오·송만호 편, 『農山 申得求의 天說·天人辨』, 도서출판 선명, 2007년 참조.

4) 호남한문학회연구소, 『20세기 호남 한문 문집 간명해제』, 경인문화사, 2007년, 423쪽 참조.

5) 이형성, 「欽齋 崔秉心の 性理思想」, 『良齋學論叢』 제13집, 2012년. 참조.

6) 『論語』 卷8 「泰伯」 <第13章> : 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

7) 엄명섭의 “생애와 학문의 연원”은 이은혁의 논문 「敬窩 嚴命涉의 學問과 思想」 참조.

따라서 본고는 곡성과 전주에서 활약한 엄명섭의 수도적 삶과 경전해석, 성사심제설(性師心弟說) 계승과 마음 수양을 다루었다.<sup>8)</sup> 이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유교사상 발전과 계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다.

## 2. 立志讀書와 學聖

엄명섭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삶을 영위하였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짓밟는 기간, 엄명섭은 먼저 정훈(庭訓)에 따라 수신(修身) 공부에 힘썼다. 14세 때 인근 진형봉 선생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혔는데, 학문을 위한 도서가 없음을 늘 아쉬워했다. 아들을 위한 부친(엄주용)의 사서삼경(四書三經) 구입은 엄명섭의 학문이 일취월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람이 어디에 뜻을 두느냐에 따라 그 인격이 결정된다. 공자는 인(仁)에 뜻을 두면 악함이 없다고 하였는데,<sup>9)</sup> ‘인’을 향하는 원초적 지점은 효제(孝弟)의 도리가 될 것이다. 효제의 도리를 배워 실현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다. 사람이 동물 다른 것은 바로 배움이 있기 때문인데, 배우는 것은 뜻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sup>10)</sup>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금수와 같은 무리가 되기에 뜻을 세워 배워야 하는데, 그 배움의 도는 미래 자신이 해야 할 뜻을 분명하게 세우고 독실하게 행하여<sup>11)</sup>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sup>12)</sup> 엄명섭에 의하면, 뜻을 세우고 학문을 완성함에 있어 『소학(小學)』 「경신(敬身)」 편을 중시하였다. 때문에 학문을 이루고 자기를 완성하는 것은 뜻을 세우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sup>13)</sup> 널리 배우고 뜻을 세워 독실하게 하는 것은 인(仁)의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다.<sup>14)</sup>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할 것이다.

엄명섭은 1925년 약관의 나이에 스승 진형봉에 서한을 보내 독서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서는 옛 성현이 마음 쓴 자취를 구하되 힘을 다하고 종사하여 이회하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함이 하늘에 근본하는 학문이라고 여기고 이 박약극복(博約克復)의 공부를 좇아가면 장차 들어가는 곳마다 자득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독실하게 믿고 죽음으로 지켜서[篤信守死] 탐구하고 종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옥이 생각하건대, 요임금과 순임금은 정일집중(精一執中)의 큰 성스러움으로써 백성들이 친근하지 않을까 근심하여 인륜(人倫)을 가르쳤는데 그 도는 마침내 효제(孝弟)일 따름이다.<sup>15)</sup>

8) 연구의 일차자료는 2005년 光明文化史에서 발행한 『敬窩私稿』이다.

9) 『論語』卷4 「里仁」 <第4章> : 子曰: “苟志於仁矣, 無惡也.”

10) 『敬窩私稿』(上) 書 「與張殷植」, 354쪽: 丈夫生世間, 具耳目口鼻之形, 所以異於物者, 以有此學耳. 學莫先於立志.

11) 『敬窩私稿』(上) 書 「與裴炳植(己丑)」, 365쪽: 立志篤學. 참조.

12) 『敬窩私稿』(上) 書 「與沈潤植(丙戌)」, 328쪽: 學之爲道, 其任其務, 顧不重且大·精且微耶? 참조.

13) 『敬窩私稿』(上) 書 「寄子裁武(丙戌五念三)」, 408쪽: 成學成己, 豈有先於立志耶? 참조.

14) 『論語』卷19 「子張」 <第6章> :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

15) 『敬窩私稿』(上) 書 「上小松晉先生(瑩奉字中立○乙丑)」, 266쪽: 讀書, 以求古聖賢用心之迹, 竭力從之, 理會不已者. 此謂爲己本天之學, 而從此博約克復之功, 將無入而不自得焉. 可不篤信守死以求之從之也歟! 竊惟堯舜, 以精一執中之大聖, 憂民不親, 教以人倫, 而其道竟是孝弟而已.

엄명섭에 의하면, 독서하기 이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조용히 앉아 오로지 하나의 일에만 힘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6)</sup> 이러한 마음상태가 된 이후에 독서하는데, ‘옛 성현이 마음 쓴 자취를 구하는 것’은 바로 성현의 행의를 법도로 삼아 사물과 자연을 이해하고 사회와 인간의 다양한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박약극복(博約克復)”의 공부를 보자. 먼저 ‘박약(博約)’은 성현의 글에서 널리 배우고 배운 지식을 예(禮)로써 요약하는 것이다.<sup>17)</sup> ‘극복(克復)’은 “극기복례(克己復禮)”<sup>18)</sup>의 줄임말로, ‘극기’는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겨내는 것이고, ‘복례’는 예에 돌아가는 것이다. 주자학에 의하면, ‘예’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예(禮)’로 보면 본성을 의미하고, 하늘의 이치가 현실에 적용되는 예법으로 보면 천리(天理)의 절문(節文)이다.<sup>19)</sup> 여기서 ‘절(節)’은 등급이고 ‘문(文)’은 곧이곧대로 하지 않고 안곡하게 하는 모양이다.<sup>20)</sup> 절문이란 현실에서 익혀야 할 경례삼백(經禮三百)과 곡례삼천(曲禮三千)에 해당할 것이다. 때문에 복례 공부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적에 모든 행위가 경례삼백과 곡례삼천에 합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예로 요약하여 천리로 향하는 것이다. 그것이 천리라면 독실하게 믿고 죽음으로 지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인데, 이들이 실현한 효제의 도리를 독서가 지향해야 할 기본 내용으로 삼았다. 엄명섭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성인과 같이 행의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본래 요임금순임금과 모두 같고 마음[方寸] 가운데 구비되었다. 독서는 장차 이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배워 다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러나 그 배우는 것은 점진이 있고 도리가 있으니, 뜻을 세워 도리를 배우는 것은 먼저 예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기 몸을 검약하는 것이다. 예컨대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남녀가 집에 거처하는 것과 같은 종류이니, 그 인육의 사사로움을 깎아내고 그 천리의 공정함을 보존하면 마음의 지각과 온 몸이 명령을 듣지 않음이 없어 행동거지와 말소리, 위(威儀)와 동작(動作)이 모두 그것에 연유하여 올바름을 따를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야, 배움이 넓어지고 예가 요약되어 행동이 닦여지고 덕이 확립되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 이후 그것으로 오류를 돈독하게 하면 오류가 펼쳐질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 만물을 밝히면 여러 만물이 알맞을 것이며, 그것을 천하와 만국에 조치하면 다스려지고 평화롭게 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그것을 천지와 만물에 참여시키면 <천지가> 제자리잡고 <만물이> 육성될 것이다. 이것을 일러 배움이 그 진실함을 얻고 본성이 그 근본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다.<sup>21)</sup>

유학의 심성론에 의하면, 인간의 순전한 본성은 누구나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순전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일반 사람도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면 성인과 같다. 하지만 본성은 1차적으로 마음이 감싸고 있고 2차적으로 몸이 가리고 있어, 그 순전한 본성은 발현되기가 쉽지 않다. 일반 사람은 더욱

16) 『敬窩私稿』(上) 書「與張殷植(乙酉)」, 352쪽 : 靜坐讀書.

『舜山日記』 <庚寅三月三日> : 專心讀書. 幸矣悅矣.

17) 『論語』 卷6「雍也」 <第25章> :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18) 『論語』 卷12「顏淵」 <第1章> :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顏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顏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19) 朱熹는「學而」 <第12章> “禮之用”의 “禮”에 대해 “禮者, 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也”라고 하였고, 「顏淵」 <第1章> “克己復禮”의 “禮”에 대해 “禮者, 天理之節文也”로만 규정하였다.

20) 『論語集註』 卷1「學而」 <第12章·小註> : 節者, 等級也. 文者, 不直截而回互之貌.

21) 『敬窩私稿』(上) 書「與沈潤植(丙戌)」, 328쪽 : 人之性善, 本與堯舜皆同, 而具乎方寸之內. 讀書者, 將以學此性善而欲盡之而已矣. 然其學也, 有漸有道, 立志而學道者, 先以禮法檢約自身於日用行事. 如衣服飲食男女居室之類, 剝其人慾之私, 而存其天理之公, 則心知百體, 無不聽命, 而容止辭令威儀動作, 皆由順正矣. 如此上做, 至於學博禮約, 而行修德立. 後以之篤五倫, 則五倫絃矣; 以之明德庶物, 則庶物得矣; 措之天下萬國, 無不治平矣; 參之天地萬物, 無不位育矣. 是之謂學得其真·性得其本矣.

그렇다. ‘뜻을 세워 도리를 배우는 것은 먼저 예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기 몸을 검약하는 것’이란 바로 행동하는데 마음을 열고 눈을 밝히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sup>22)</sup> 마음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면 인욕의 사사로움은 사라지고 천리의 공정함이 보존되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마다 올바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올바름을 얻는 과정이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엄명섭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부(富)를 이루려는 자는 반드시 그 근면과 노동의 힘을 백 배 해야 한다. 독서하여 성공하기에 이를 적에도 유독 그러함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은 이미 남이 한 번에 하면 자신은 백 번 하고 남이 열 번에 하면 자신은 천 번 한다는 가르침이 있었고, 이어서 “과연 이러한 도에 능하면 비록 어리석으나 반드시 밝아지고 비록 유약하나 반드시 강성해진다”라고 하였으니,<sup>23)</sup> 그 반드시 이러한 이치가 있음을 밝히고 말하였다. 가사 배우는 자가 독실하게 믿고 힘을 써서 미치기를 바라지만 조금이라도 핑계대며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뜻을 세워 독서하는 자가 어찌 정성스럽게 가슴속에 간직하지 않겠는가?<sup>24)</sup>

이는 뜻을 세워 독서하려는 사람은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한 정성이 가슴에 충만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특히 성현이 언표한 ‘남이 한 번에 하면 자신은 백 번 하고 남이 열 번에 하면 자신은 천 번 한다’는 것을 인용한 것은 엄명섭 역시 『중용』의 사상을 통해 애써서 알고 힘써서 실천하는 용맹정진의 정신<sup>25)</sup>을 배양하면서 학인들에게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기를 권면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 어리석은 사람도 현명해지고 나약한 사람도 강성해지기 때문이다. 즉 선을 선택하여 굳건하게 간직함으로써 기질을 변화시켜 간 것이다. 누구나 기질변화가 가능한 것은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을 기약하는 공부와 그 노력이 없다면 가능하겠는가? 엄명섭은 “뜻을 세워 독서하는 것은 반드시 성인으로써 스스로 기약하되 나의 앎과 행동을 다하여 내 본성의 선함을 회복하는 것이니, 이러한 학문은 참으로 지향하는 표준이 있고 한결같이 돌아가 머물면서 함께 거쳐하기를 구하는 일이다”<sup>26)</sup>라고 하였다. 성인을 기약할 적에 나의 참다운 앎과 실천적 행동 즉 진지실천(眞知實踐)이 본성을 회복시켜 기질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뜻을 세우고 독서하여 구하는 것은 바로 성인이 알고 실천한 참된 도이기에<sup>27)</sup> 애초 학문에 뜻을 세우는 것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기약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28)</sup> 즉 성인을 향하는 좋은 독서야말로 미래 희망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sup>29)</sup>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뜻을 세워 성인을 배워 늘 스스로 분발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공부를 이루어 본성을 온전하게 하는 활법(活法)이 되는 것이다.<sup>30)</sup>

22) 『敬窩私稿』(上) 書「與金鈺斗(乙未)」, 389쪽 : 夫所以讀書學問, 本欲開心明目利於行耳.

23) 『中庸章句』「第20章」: 人一能之己百之, 人十能之己千之. 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強. 참조.

24) 『敬窩私稿』(上) 書「與鄭聖孝(丁亥)」, 339쪽 : 欲致其富者, 必百倍其勤勞之力. 至於讀書成功, 獨無其然乎? 故述聖已有人一己百·人十己千之訓. 繼而曰: “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強.” 明其必有此理而言之. 使學者, 篤信着力以企及, 而不可使有一毫退托自棄之事也. 立志而讀書者, 豈不眷眷服膺也哉?

25) 『中庸章句』「第20章」: 常百倍其功. 此困而知, 勉而行者也, 勇之事也. 참조.

26) 『敬窩私稿』(上) 書「與李卜宰(乙未)」, 393쪽 : 立志讀書, 必以聖人自期, 而致吾知行, 復吾性善, 此學問所以信有指的, 而求一歸宿同處之事也.

27) 『敬窩私稿』(上) 書「上小松晉先生(瑩奉字中立○乙丑)」, 266쪽 : 立志讀書而奮發求道者, 非聖人所知所行, 則不敢求知求行.

28) 『敬窩私稿』(上) 書「與崔萬植(乙酉)」, 337쪽 : 此人之所以立志於學, 而學期至乎聖人者也. 참조.

29) 『舜山日記』〈辛卯九月一日〉: 善率讀書, 則必有異日餘慶云.



성인을 목표로 향하는 끊임없는 노력은 성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한 본성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의 ‘활법’은 바로 모든 것에 활용할 수 있는 법도이다.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은 근면으로 말미암아 이를 수 있는데, 독서로 성공하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백 배 더 근면한 뒤에야 그 거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노력하지 않겠는가”<sup>31)</sup>라고 하고, 나아가 “천하의 선은 독서보다 먼저할 것이 없고 천하의 불선은 독서하지 않는 것보다 먼저할 것이 없으니, 독서 속에는 본래 천하의 무궁한 큰 복이 있다”<sup>32)</sup>라고 하였다. 이는 성공을 보장하고 본성을 온전하도록 하는 독서가 천하의 무궁한 복이 되기에 누구나 독서를 향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엄명섭은 독서를 통해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남달리 강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된 이후, 불혹(不惑)의 시기 그는 “세도(世道)가 없어지고 인의(仁義)가 막혀 백성들은 정해진 뜻이 없어 독서가 귀한 줄도 알지 못한다. 장차 그 독서하려는 자들은 유교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힘쓰는 실질적 도리인 줄도 알지 못하고 왕왕 그 천근(淺近)한 공명과 이욕만 그저 탐한다”<sup>33)</sup>라고 하여, 참된 독서를 모르고 공명심과 이욕을 지향하는 세대를 비판하였다. 성인을 목표로 하는 그의 독서 강조는 입신양명보다는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전통을 계승하면서 지혜를 현실에 활용하여 새로운 학구열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 3. 守道志向의 編書著述

학문(學問)이란 “배우고 물음”으로써 참다운 도(道)에 나아가는 것이다. 도에 나아갈 뜻을 세워 독서하며 성인을 기약하는 것은 구도(求道)의 공부라 할 수 있다. 도를 지향하는 실질적 내용은 바로 인간의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일종의 인간이 지켜야 할 가치기준 또는 규범과 같은 것이다. 공자와 맹자로부터 리학(理學)에 이르는 도의 기준은 이에 벗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도가에서 지향하는 우주만유의 본체이면서 형상이 없는 존재로서의 도와 다른 것이다. 그렇다고 공맹유학이나 주자학에서 본체로서의 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유학자들은 윤리적 측면의 도에 중점을 둔 공자의 가르침을 학문의 근본으로 여겼다.

주지하다시피, 공자는 하은주(夏殷周) 삼대의 문화와 성현의 가르침이 깃든 서적을 정리하여 편찬하였으니, 그 책이 오경(五經), 즉 다섯 경전인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이다. 그는 창작이 아니고 체계화하였다 하여 술이부작(述而不作)으로 언표하였다. 그의 편찬은 유학이 독존적 지위를

30) 『敬窩私稿』(上) 書「寄姪栽文(戊子)」, 405쪽: 立志學聖, 而每自奮發不已, 是爲成功全性之活法也.

31) 『敬窩私稿』(上) 書「與許炯(一名泳大○乙酉)」, 343~344쪽: 凡事必由勤而得成, 至於讀書成功, 必也百倍加勤, 然後庶可見其收效矣, 豈不勉力也哉?

32) 『敬窩私稿』(上) 書「與張殷植(乙酉)」, 370쪽: 蓋天下之善, 莫先於讀書; 天下之不善, 亦莫先於不讀書, 而讀書中自有天下無窮之大福矣.

33) 『敬窩私稿』(上) 書「與朴舜圭(丁亥)」, 295쪽: 今世道襄陵, 仁義充塞, 民無定志, 不知讀書之爲貴. 且其讀書者, 不知儒術之爲日用常務之實理, 往往徒貪其淺近之功利.

연게 되었고 또한 그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는 오랜 기간 동안 유학자들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중국 송나라 때 성리학이 부흥하면서 『맹자』가 매우 중시되었다. 그와 아울러 주희(朱熹: 1130~1200)는 『예기』에 속한 「대학」과 「중용」 두 편이 유학의 근본적 개론이 된다고 하여 장구(章句)를 새롭게 만들고 주석하여 『논어』·『맹자』·『대학』·『중용』을 사서(四書)라 부르고, 이 사서야말로 사제전수(師弟傳授)의 도통(道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사서와 오경은 유교적 도를 구하는 방법과 체계를 구축한 경전이 되어 사상의 큰 흐름을 바꾸었다. 이렇게 구축된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학(經學)이다. 경전 가운데 사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육경(六經)은 본성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하는 책으로 전자의 내용은 본체이고 후자의 내용은 응용이나 큰 본체가 확립된 뒤에 큰 응용이 행해지는 서책으로 간주되었다.<sup>34)</sup>

엄명섭은 향리에서 학문을 닦을 무렵인 15세(1920년) 때 칠서(七書)를 구비하면서 큰 포부를 갖고 학문에 매진하였다. 일찍이 『소학』 공부를 통해 실천을 배양하였다면 『맹자』 공부는 주자학의 본령에 접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위해 21세(1926년) 때 고향 금산마을에 서당을 마련하여 학동들을 가르치다가, 장병회를 통해 전우의 사상을 접하였다. 36세(1941년) 때 스승이 세상을 떠난 이후, 홀로 학문에 매진하면서 여러 학인들과 교류하였다. 40세(1945년) 때 어느 학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성인의 가르침과 말을 오로지 지향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의 책은 우주에 가득하고, 천하의 도도 우주에 가득하다. 그 사이에서 사람이 마땅히 읽어야 할 책은 어찌 성경현전(聖經賢傳)의 지극한 글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구할 도는 어찌 성명(性命)과 인의(仁義)의 지극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대개 우리 인의의 본성은 하늘에 근원하여 나와서 혼연하고 지극히 선하여 하나의 이치를 갖추지 않음이 없고 하나의 사물도 갖추지 않음이 없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의와 강상 윤리의 아름다운 덕은 여기에 근본하지 않음이 없으니, 본성과 마음이 직책을 나눈 속이다. 우뚝하신 저 성인은 먼저 이를 깨달아 말을 세우고 책을 저술하였는데, 그 가르침과 말도 천리(天理)와 의칙(儀則)의 절문(節文)과 도수(度數)가 아닌 것이 없으니, 한 가지라도 버려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무릇 천하의 이치가 어찌 여기에 더함이 있겠는가?<sup>35)</sup>

이에 의하면, 천하의 책과 도는 우주에 가득하여도 사람들은 성인과 현인의 지극한 경전의 글을 통해 인의의 본성을 발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지만 성인처럼 말을 세우고 책을 저술하려는 마음가짐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큰 뜻을 가지고서 41세(1946년) 때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우의 고족 문인 최병심을 찾아가 학문을 닦는다. 스승에게 왕래하면서도 고향 인근에 약천숙(藥川塾)을 세워 후학을 훈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최병심의 영향을 받아 “진실로 뜻을 세워 오서(五書)와 오경(五經)의 글을 정밀하게 읽어 그 이치를 모조리 알고 그 도를 죄다 행할 수 있으면 천

34) 『六經圖』 「六經圖序」: 六經皆經世之書也, 而實治性之書, 蓋治成體也, 經世用也. 大體立而後, 大用行. 易兼四聖, 書備六王, 禮兼三代, 詩刻四始, 春秋明三綱九法, 聖人之精蘊盡, 聖人之眞性出矣. 참조. 【참고】 『六經圖』는 청나라 때 鄭之僑(1707~1784, 字는 茂雲, 호는 東里)가 지은 서책이다. 『六經圖』, 述堂藏板, 乾隆 8年(174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35) 『敬窩私稿』(上) 書 「答呂大運(乙酉)」 343쪽: 天下之書, 盈於宇宙矣; 天下之道, 亦盈於宇宙矣. 其間人所當讀之書, 豈非聖經賢傳之至文? 所必求之道, 豈非性命仁義之至理也耶? 蓋吾仁義之性, 源出乎天, 而渾然至善, 無一理之不具, 無一事之不備; 人義綱常倫理之懿德, 無不本乎此, 性心分職之乃也. 卓彼聖人先覺乎此, 立言著書, 而其訓其辭, 亦無非天理儀則之節文度數, 不可闕一而忽略者也. 凡天下之理, 豈有加乎此者哉?

하의 앎과 행동이 바르게 될 것이고 천하의 앎과 행동이 다하게 될 것이다. 뜻이 있어 도를 배우는 자가 알기를 구하고 행하기를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36)</sup>라고 언급한 바, 이는 정밀한 독서에 의한 앎과 행동이 주자학적 선지후행(先知後行)의 양상을 띠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앎과 행동이 바르게 되고 함께 완성되기를 희구하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양상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8세 때 고향 집에 금산서사(金山書舍)를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후학을 지도할 때마다 후학들이 지켜야 할 규약(規約)과 학규(學規)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쳤다.<sup>37)</sup> 주갑(周甲)이 되는 1966년(병오)부터는 독서하며 의문난 점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니, 그 책이 『독서기의(讀書記疑)』이다. ‘기의(記疑)’란 저술형식은 책을 읽으며 의문점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난 점을 스승에게 직접 물어 답을 요하는 바도 있으니, 『주자서절요기의(朱子書節要記疑)』가 그 책이다. 이 책은 조선 중기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편찬한 『주자서절요』 가운데 난해한 구절을 그의 문인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이 질의하고 이황이 답한 내용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러한 저술형식에 의거하여 여러 학자들이 경전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우도 81세에 『대학기의(大學記疑)』와 『중용기의(中庸記疑)』를 짓기도 하였다. 엄명섭은 전우의 영향을 수용하였겠지만, 지식을 주체적으로 체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비판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이러한 학적 태도를 견지하며 여러 서책을 편술(編述)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고향 곡성에서 가르쳤던 엄명섭은 학동들에 맞는 서책을 가르쳤다. 1977년 전주로 이거하여 강학이 이어졌지만, 학동들이 보는 서책들은 규모가 각각 다르고 서차도 맞지 않으며 조리가 관통하지 않아 뒤섞이고 산만하였다. 그리하여 그 책들을 일일이 정리하여 『동몽독본(童蒙讀本)』(1979년)을 만들었는데 국문으로 해석까지 가하여 배우기 쉽고 문리(文理)가 난해하지 않도록 하였다.<sup>38)</sup> 엄명섭의 치밀한 교수법에 많은 학동들뿐만 아니라 경서를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이 찾아들자, 조선 시대 학문의 근간을 이룬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소학집주(小學集註)』를 10여 년 동안 자필로 언해하여 1989년 5월에 마무리하였다. 그 언해 분량은 총 35책이다. 당시 벗들이 복사하여 보고자 하였으나, 그는 “해석한 말이 경전의 의의(意義)에 부합되지 않아 후학을 먼저 잘못 가르치고 사문(斯文)에 누(累)가 염려스러웠다”라고 하여<sup>39)</sup>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복사를 허여한 듯하다. 엄명섭이 여러 서책에 대한 편술시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6) 『敬窩私稿』(上) 書「與金鉦斗(乙未)」, 389쪽: 苟能立志精讀五書五經之文, 盡知其理, 而盡行其道焉, 則天下之知行正矣, 天下之知行畢矣. 有志而學道者, 可不求知而勉行哉?

37) 『敬窩私稿』(下) 雜著「金山書舍規約(癸卯二月日)」, 507~508쪽 참조.

38) 『童蒙讀本』, 『童蒙讀本諺解序』 참조. 『童蒙讀本』은 『註解千字文』, 『朝鮮歷史千字文』, 『四字小學』, 『聚句』, 『萬物集』, 『學語集』, 『童蒙先習』, 『東國歷代帝王傳授統圖』 등을 합본한 것이다. 이 책은 1989년 재교열하고 用藥例를 추가하여 학민문화사에서 1992년 영인 발행하였다.

39) 이는 『언해본』 앞에 간략하게 쓴 서문에 보인다.

40) 『동몽독본』은 1989년 3월 10일에 책 표지를 단장하였다.

서명	편술시기		비고
	시작	종료	
『독서기의』	1966년(丙午) 3월 14일	?	
『동몽독본』	?	1979년(己未) 9월 20일 <sup>40)</sup>	
『논어집주언해』	?	1979년(己未) 12월 20일	
『시전언해』	?	1980년(庚申) 10월 15일	
『서전언해』	1980년(庚申) 10월 21일	1981년(辛酉) 9월 3일	
『맹자집주언해』	?	1984년(甲子) 2월 4일	
『주역전의언해』	1982년(壬戌) 2월 21일	1984년(甲子) 6월 17일	
『명심보감』	1984년(甲子) 12월 14일	동월 21일	
『소학집주언해』	1986년(丙寅) 5월 26일	동년 11월 동짓날(至日)	
『용학장구언해』	?	1989년(己巳) 5월 ?일	
『격몽요결』	1990년(庚午) 1월 23일	동년 2월 25일 <sup>41)</sup>	
『시경』(『독서기의』)	1991년(辛未) 6월 15일	1992년(壬申) 5월 2일	1책
『서경』(『독서기의』)	1992년(壬申) 5월 4일	1993년(癸酉) 5월 10일	1책
『주역』(『독서기의』)	1993년(癸酉) 11월 17일 <sup>42)</sup>	1994년(甲戌) 6월 3일 <sup>43)</sup>	2책
『대학』(『독서기의』)	1993년(癸酉) 5월 10일	1993년(癸酉) 7월 3일	1책
『중용』(『독서기의』)	?	1993년(癸酉) 8월 14일	
『격몽요결장구석의』 (『독서기의』)	?	1993년(癸酉) 11월 15일 <sup>44)</sup>	
『논어』(『독서기의』)	1994년(甲戌) 6월 13일	1995년(乙亥) 6월 7일	2책
『맹자』(『독서기의』)	1995년(乙亥) 6월 22일 <sup>45)</sup>	1996년(丙子) 5월 30일 <sup>46)</sup>	2책

위의 편술 서책을 보면, 전주에 우거(寓居)한 이후 노년기에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동몽독본』을 편술한 것은 21세 때부터 몸소 가르치며 느낀 결과물이나,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동몽 교재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지양시키기 위함이라 하겠다. 또 1910년 이후 문맹퇴치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맞서 한글(국문)을 보급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 전통문화유산이 깃든 한문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복 이후, 산업발전에 맞춘 교육을 시도하다보니 어려운 한문공부보다는 한글을 우선시하는 교육정책이 펼쳐졌다. 엄명섭이 『예기』와 『춘추』를 제외한 사서삼경과 『소학집주』에 친착하여 언해한 것은 한문을 쉽게 읽고 그 이면의 유학사상과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여러 경서 언해와 이를 기초한 강학활동은 당시 산업발전을 도모하면서 부족한 국학연구에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그는 경서를 언해하면서 이이의 『격몽요결』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그 책의 장구

41) 『격몽요결』은 동년 7월 25일에 책 표지를 단장하였다.

42) 이는 『주역상경』을 시작한 시기이나, 그 마친 시기는 1994년 6월 3일이다.

43) 이는 『주역하경』과 『繫辭傳(上·下)』·『說卦傳』·『序卦傳』·『雜卦傳』까지 마친 시기이다. 그 『주역하경』을 마친 시기는 1994년 5월 22일이다.

44) 이는 『격몽요결』 부록으로 있는 『재의초』까지 마친 시기이다.

45) 이는 『맹자』를 시작한 시기이나, 그 『梁惠王』에서 『離婁』까지 마친 시기가 동년 10월 7일이다.

46) 이는 『맹자』를 마친 시기이나, 그 『萬章』에서 『盡心』을 시작한 시기는 동년 11월 9일이다.

마다 석의(釋義)를 붙여 1990년 『격몽요결장구석의(擊蒙要訣章句釋義)』를 지었다. 이어 이후 이 책의 장구마다 주석하여 성리학적 또는 문자학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는 그의 학적 태도는 기호학과 학인들 가운데 첫 시도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격몽요결』은 덕행과 지식을 함양하여 도학의 입문서이자 성리학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그는 여러 차례 교열하여 1993년에 출간하였다. 이 책의 서문(1994년)을 지은 송정헌(宋廷憲: 1913~1995)은 『격몽요결』의 핵심에 나아가 해석하였기에 이해하고 깨닫기 쉬워 그 진체(眞體)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옛 경전과 도를 회복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sup>47)</sup> 더욱이 엄명섭의 치밀한 석의는 주희가 여러 경전을 주석한 것에 견줄 정도였으니 율곡학과 기호학을 이해하는데 그 요령이 있었을 것이다.<sup>48)</sup> 그가 주희의 장구 형식을 활용하여 『격몽요결』의 뜻을 치밀하게 해석한 것은 현대인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함양하여 도학군자가 되기를 희구한 것이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학문이란 그 원류를 고구(考究)하지 않는다면 고급의 변화를 알 수가 없고, 그 득실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입문(入門)의 방도를 잃게 되는 것이다.<sup>49)</sup> 한말유민이라 자칭한 엄명섭은 평생 선비로서 해야 연학(研學)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후학 훈도에 노력하고 또한 유학의 본령인 도를 지키고 계승하는 데 진력하였다. 선비가 연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참다운 선비가 아니라는 의식이 마음 깊숙이 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31년 동안 사서삼경과 『소학집주』를 치밀하게 언해한 『사서삼경집주언해』와 『소학집주언해』 총 35책, 그리고 의문난 점을 꼼꼼하게 기록한 『독서기의』 9책은 유학의 교학적(敎學的) 탐구의 밑거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교학적 탐구는 공자의 술이 부작(述而不作)의 정신이 깃들고, 외세에 밀려 멀어지는 유교적 문화와 사상에 대한 우환의식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특히 경전에 대한 그의 언해 노력은 현대적 관점에서 한국경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초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性師心弟說 繼承에 의한 心修養

주자학에서 리는 태극을 의미하는 형이상(形而上)의 존재로 모든 사물을 낳는 근본이고, 기는 음양과 오행까지 포함하는 형이하(形而下)의 존재로 모든 사물을 낳는 재료로 유행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명제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체계를 리기론이라 한다. 우주와 인간의 심성 문제,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질서 등까지도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의 심성을 살펴보면, 본성은 리(태극)이고 마음은 기(음양)로 간주하기에 성은 무위성을 가진 존재이고 심은 유위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두 존재는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 않기에 그 관계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sup>50)</sup>

47) 『擊蒙要訣章句釋義』 『擊蒙要訣章句釋義跋』 참조. 이 발문은 韓東錫이나, 그 인적사항은 알 수 없다.

48) 『擊蒙要訣章句釋義』 『擊蒙要訣章句釋義序』 참조.

49) 皮錫瑞 著, 李鴻鎮 譯, 『中國經學史』(동화출판공사, 1984년), 1쪽.

엄명섭은 향리에서 학문을 닦았지만, 그의 학맥은 15년 동안 장병희에게 수학하여 전우의 학문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전우는 주자학을 탐구하여 동시대 학자들의 성리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철학적 명제라 할 수 있는 ‘성사심제설(性師心弟說)’을 주장하였다. 그 논지에 의하면, 본성의 존엄성을 높이고 지순성(至純性)을 배우며 본받아 적극적인 선의지(善意志)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51)</sup> 그의 많은 문인들은 스승의 학문적 관점을 수용하며 독실하게 믿었다. 엄명섭은 약관의 나이부터 향리에서 강학을 전개하여 적지 않은 문인들이 있었다. 당시 전우의 ‘성사심제설’에 대한 의문을 갖는 학인들이 적지 않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본성은 리이니, 형체가 없고 작위가 없지만 심기(心器) 가운데 자리하며 존재한다. 그 시초에는 불선이 없고 구비되지 않음이 없기에 지극히 높고 귀하니, 만 가지 기틀을 주재하여 본래 내 마음의 큰 선생이 되는 것이다. ㉡ 마음은 기이니, 형체가 있고 작위가 있기에 방촌 가운데서 받들며 자리한다. 그 근본에는 또한 불선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기에 지극히 신령하고 오묘하니, 바로 만 가지 기틀을 주재하여 본래 한 본성의 현명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허령하고 지극히 오묘한 마음[제자]으로서 존귀하고 지극히 선한 본성[스승]을 배워 조금도 어긋나거나 벗어남이 없고 조금도 잊어버리거나 함부로 저지름이 없기에 본래 극진하지 않음이 없고 힘쓰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을 성(誠)과 경(敬)이라고 이르고, 본성을 따른다고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천하에 그 어찌 분명하지 않을 이치와 완성되지 않을 사물이 있겠는가? 성학(聖學)과 진덕(進德)의 지극한 공부는 반드시 이로부터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본성을 따르는 공부는 사람이 성인을 배우는 도이니, 어찌 스스로 다하며 밝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것은 우리 간옹(艮翁: 전우)께서 한평생 의리를 체득해서 막힘이 없는 지극한 가르침을 꿰뚫어 본 것이고, 또한 우리 동방 도학집대성(道學集大成)의 본원이 되는 것이다. 원컨대 모름지기 학문을 할 적에는 반드시 이 뜻을 체득하여 강령을 세워 터득하고 확충하여 이룬다면, 어찌 우리 간옹(전우)께서 학문을 우려하여 하늘에 축원한 참된 뜻이 아니겠는가? 제군들이여, 힘쓸지어다!<sup>52)</sup>

이는 엄명섭이 40세 때 전우의 성사심제설을 설과한 것으로 편의상 네 단락으로 구분한 것이다. 내용 각주를 살펴보면 각 구절의 어려운 의미를 소주(小註)를 통해 그 함의를 밝히고 있다. ㉠에서 언급한 본성은 형체와 작위가 없는 리(태극)와 같은 존재이다. 이 본성이 한 마음의 주재가 되는 것은 이 본성의 선함이 태극의 이치이기 때문이다.<sup>53)</sup> 만 가지 선을 갖춘 본성은 마음의 만 가지 기틀

50) 『朱子語類』上, 卷5, 「性理2·性情心意等名義」, <砥錄>, 182쪽 “性猶太極也, 心猶陰陽也. 太極只在陰陽之中, 非能離陰陽也. 然至論太極, 自是太極; 陰陽自是陰陽. 惟性與心亦然. 所謂一而二, 二而一也.” 참조.

51) 오종일, 「性師心弟說의 性理學史的 意義」, 『艮齋思想研究論叢』 제1집, 간재사상연구회(1994년), 190쪽 참조.

52) 『敬窩私稿』(下) 雜著 「性師心弟說示諸君(乙酉)」, 502~503쪽 : 性卽理也[在天在物爲理, 在人在心爲性, 其實一也], 無形無爲[理是無形無爲, 而有太極之名], 而位存乎心器[兼方寸看]之中. 其始也, 無有不善[性善, 人與堯舜, 初無小異. 不惟此, 二實與天地無別], 無有不具[萬善具足, 無少虧欠], 至尊至貴, 所以主宰萬機, 而自爲吾心之大先生也[正如雖家長國君, 必有所尊父師也]. 心卽氣也, 有形[收斂出入呼吸之間, 可驗其往來有氣迹. 若以方寸看之, 氣自爲無形之物]有爲[出入呼吸之間, 自能奉率乎方寸之中], 而奉位乎方寸[形器]之中, 其本也, 亦無有不善[性本善, 而心亦本善. 但不奉性敬, 由而循私, 則始爲不善], 無有不能[規矩準繩之度, 無所不中不明], 至靈至妙, 卽能主宰萬機, 而自爲一性之賢弟子[性雖至善至貴, 又無能無爲, 故必待心尊之奉之, 然後始爲尊貴之職. 猶師雖至聖至嚴, 又無枉己去教, 故必待弟學之請之, 然後始盡教授之義也. 且心不奉性, 則其虛靈之妙, 能終自循私失正, 故必自奉尊德性, 然後循理得正, 始與百體爲性之賢弟也. 猶弟不尊師, 則其英敏敏之才, 能終自循私取度, 故必自恪遵師訓, 然後始與諸子爲師之高弟也. 此理一無小異, 請讀經傳, 而博考體得也]. 以虛靈至妙之心[弟], 學尊貴至善之性[師], 而無少遠離[非性違心, 而心自不奉, 故相離. 所謂天命, 操則存, 捨則亡, 是也] 無少遺忘, 自無不盡, 自無不勉, 是之謂誠敬, 是之謂率性[率, 循也, 卽奉性之理, 而行之由之謂也. 非心自爲師, 敢提率其性之謂也.] 如此, 則天下其何有不明之理不成之物哉? 聖學進德極工, 必自此可盡矣. 心率性之工, 人學聖之道, 豈可不盡自明耶? 此吾艮翁一生, 體得義理, 而通見無滯之至訓, 而亦所以爲吾東道學集大成之本源也. 願須爲學, 必體此義, 立得綱領, 而擴充成之. 豈非奉吾艮翁愛學祝[願天生聖]之眞意耶? 諸君乎勉之!

53) 『敬窩私稿』(上) 書 「與裴炳植(己丑)」, 365쪽 : 至尊而無對, 純善而無惡. 無形無爲而自爲一心之主宰者, 此吾性善太極之理也. 참조.

을 주재하는 것이기에 마치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나라에서의 임금과 같은 것이다. ㉒에서 언급한 마음은 형체와 작위가 있는 기와 같은 존재이다. 이 마음이 만 가지 일의 주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직분이 음양의 덕이기 때문이다.<sup>54)</sup> 즉 마음의 근본은 본래 선하고 그림쇠나 곱자 또는 먹줄과 같이 하나의 표준이 되기에 지극히 신령하고 오묘한 존재이다. 그 마음이 본성을 따라 몸이 하는 만 가지 일을 주재하는 것이기에 본성의 현명한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본성을 받들지 않으면 그 허령한 오묘함이 사사로운 몸의 기운을 따르기에 그 몸으로 하는 일이 바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듯이 마음이 몸의 사사로움을 주재하여 본래 타고난 덕성을 따라야 마음이 몸과 함께 선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㉑에서 성의 주재를 말하고 ㉒에서 심의 주재를 말하고 있는 바, 이는 전우에게서 보이는 본성과 마음의 상호주재성을 언급하는 것이라 하겠다.<sup>55)</sup> 이는 본성이 마음을 주재하는 것은 표준적 의미이고, 마음이 본성을 발현시키는 것은 능동적 의미이다. 엄명섭 역시 이와 유사하지만, 본성이 주재한다는 것은 ‘소이주재(所以主宰)’로 주재하는 표준의 의미이다. 반면 마음이 주재한다는 것은 ‘능주재(能主宰)’로 마음이 본성을 따라 몸의 행위를 주재할 수도 있고 주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부의 의미이다. 본성과 마음에 대한 주재의 의미를 성리학적으로 분명히 하였다. ㉓은 보통사람이 성인을 배우듯, 허령하고 지극히 오묘한 마음[제자]이 존귀하고 지극히 선한 본성[스승]을 따라야 함을 제시하면서, 맹자가 언급한 “잡아 두면 보존되고 놓아 버리면 잃어버린다”<sup>56)</sup>는 것을 이끌어 순선한 마음을 보존하는 수양을 언표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순선한 마음을 보존하게 한 것을 ‘성(誠)’과 ‘경(敬)’이라 이르고 ‘본성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㉔는 전우가 한평생 의리를 체득해서 전혀 막힘이 없는 ‘성사심제설’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도학의 집대성이 되는 본원이기에 제군들이 힘써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엄명섭은 ‘성사심제설’을 발표한 이후, 20여 년 동안 철학적 고뇌로 “본성은 하늘이고 마음은 땅이니, 감히 자리를 바꿀 수 없다”<sup>57)</sup>라고 언명하였다. ‘본성은 하늘이고 마음은 땅이다’는 성천심지설(性天心地說)은 전우의 ‘성사심제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sup>58)</sup> 하지만 이 명제는 전우의 성존심비설(性尊心卑說)의 영향을 넘어 “천존지비(天尊地卑)”<sup>59)</sup>라는 『주역』의 우주론을 인간의 심성론에 적용시킨 것이다. 즉 인간 마음의 도덕적 선의지의 실현으로 순선한 본성과의 일치를 모색한 것이니, 그러한 수양이 된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는 경지까지 이를 것이다.<sup>60)</sup>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는 경지’는 송나라 이후 『주역』의 천인합일의 극치로 여겨진 것이기에<sup>61)</sup> 엄명섭의 고뇌에 찬 이 명제는 우주로서의 천지와 인간을 대립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천인합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성사심제설에서 보았듯이, 문제는 인간의 순선한 마음이 현실 속에서 간혹 사특함과 바름, 선과 악

54) 『敬窩私稿』(上) 書「與裴炳植(己丑)」, 365쪽: 至靈而無窮, 應變而無失, 有氣有爲而能爲萬事之主宰者, 此吾心職陰陽之德也.

55) 이상익, 『기호성리학논고』(심산, 2005년), 283~347쪽 참조.

56) 『孟子』 卷11 「告子(上)」 <제8장>: 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57) 『敬窩私稿』(河) 雜著「自警靈臺」, 503쪽: 性天心地, 罔敢易位.

58) 이은혁, 『敬窩 嚴命涉의 學問과 思想』, 『간재학논총』 제23집, 간재학회(2017년), 327쪽.

59) 『周易』「繫辭上傳」, 「第1章」: 天尊地卑, 乾坤定矣.

60) 『周易』「乾卦·文言傳」: 「文言」曰: “(…)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 참조.

61) 풍우(馮禹) 저, 김갑수 역, 『천인관계론』, 신지사원, 1993년, 325쪽.

이 다르게 발현되어 위태롭기 쉽다는 것이다.<sup>62)</sup> 기호학을 계승한 전우 역시 마음의 이러한 경향 때문에 마음을 리(理)가 아닌 기(氣)로 간주하였다. 성리학자들의 존양성찰(存養省察) 공부야 바로 위태롭기 쉬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엄명섭이 맹자의 “잡아 두면 보존되고 놓아 버리면 잃어버린다”는 논지를 원용한 것은 성리학에서의 마음을 보존한다는 존심(存心)의 수양이다. 엄명섭은 존심을 위한 방법으로 ‘주일무적(主一無適)’의 경(敬) 공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주일무적’의 ‘경’ 공부란 『논어』 「향당」 편에서 언급한 “식사할 적에 말하지 않고 잠잘 적에 혼잣말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sup>63)</sup> 이를 보면, 몸을 경건하게 하는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의 도는 오륜보다 잘 갖추어진 것이 없고, 천하의 효도는 또한 몸을 경건하게 하는 것보다 먼진할 것이 없다. 몸을 경건하게 하는 것은 천하의大本이면서 지극한 덕이다. 이 몸을 경건하게 하는 덕을 다하고 그것으로써 어버이를 사랑하면 어버이를 사랑하는 인(仁)이 다할 것이고, 그것으로써 임금을 섬기면 임금을 섬기는 의(義)가 다할 것이다. 부부장유·붕우의 지(智)·예(禮)·신(信)에 이르러서도 이로부터 유추하지 않음이 없고, 천지가 체자리 잡고 만물이 육성되는 남은 일에 미쳐서도 또한 이로부터 다하지 않음이 없다. 몸을 경건하게 함이 천하의 큰 귀함으로 여기는 것이 어떻다 하겠는가? 신체발부(身體髮膚)를 감히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몸을 경건하게 하는 근본이고, 몸을 바르게 세우고 도를 행하는 것은 몸을 경건하게 하는 덕이며,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 어버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몸을 경건하게 하는 효험이다.<sup>64)</sup>

이는 몸을 경건하게 하는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효행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건한 마음에 의한 주일무적의 ‘경’ 공부가 있고 이것을 통해 존심이 되면 마음의 뜻이 진실하게 되는 ‘성’이 될 뿐만 아니라 본성을 따르는 것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자학에서의 ‘경’ 공부도 또 마음을 항상 깨어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sup>65)</sup> 엄명섭은 “마음을 수렴한다는 ‘수심(收心)’에 자신을 일깨우고 각성시키는 면”<sup>66)</sup>이 있음을 상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학문을 하는 것은 도를 닦는 것인데, 도를 닦는 것은 몸을 닦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고, 몸을 닦는 것은 마음을 수렴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마음을 수렴하는 것은 학문을 하고 도를 닦는 요체가 되는 것이다. 도를 잘 배우는 사람이 진실로 마음을 수렴하는 한 법을 얻는다면 일마다 살피고 기미마다 살피니 천하의 이치에 있어서 장차 얻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sup>67)</sup>

즉 학문을 하고 도를 닦는 가장 근저에는 마음을 수렴하는 수양이 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수렴하는 수양이 극진하게 되면, 하는 일마다 그 일의 기미를 살펴서 천하의 이치대로 알맞게 적용할 것이다.

62) 『敬窩私稿』(上) 書「與裴炳植(己丑)」, 365쪽 : 心無一事之不能, 而或有邪正善惡之發殊. 참조.

63) 『敬窩私稿』(上) 書「答鄭海爽(壬辰)」, 391쪽 : 所問存心不他, 此即主一無適之敬工也. 如食不語寢不言之類, 是其事與目也. 참조.

64) 『敬窩私稿』(上) 書「與從姪栽順(丁亥)」, 420~421쪽 : 天下之道, 莫備乎五倫, 而天下之孝, 亦莫先乎敬身. 敬身者, 是天下之大本至德也. 盡此敬身之德, 以之愛親, 則愛親之仁盡矣; 以之事君, 則事君之義盡矣. 以至夫婦長幼朋友之智禮信, 莫不自此推之, 以及於天地萬物位育之餘事, 亦莫不由此致之. 敬身之爲天下大貴, 爲如何哉? 身體髮膚, 不敢毀傷, 是敬身之本也; 立身行道, 是敬身之德也. 揚名顯親, 是敬身之效也.

65) 오하마 마키라 지음, 이형성 옮김, 『범주로 보는 주자학』(예문서원, 1997년), 238쪽.

66) 『敬窩私稿』(上) 書「與張殷植(乙酉)」, 338쪽 : 收心之要, 只是提撕警覺, 而勿失勿怠而已. 참조.

67) 『敬窩私稿』(上) 書「與張殷植(乙酉)」, 351쪽 : 夫爲學, 所以修道, 而修道莫先於修身, 修身莫先於收心. 收心者 所以爲爲學修道之要法也. 善學者, 苟得收心一法, 則隨事隨省隨機隨察, 於天下之理, 將無不得矣.



마음을 수렴하는 요체는 바로 ‘경’이란 한 글자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므로<sup>68)</sup> ‘경’에 의한 마음 수렴 공부는 마음이 스스로 본성을 받들어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sup>69)</sup> 경은 마음이 본성을 따르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수렴되어 이치(본성)와 하나가 되었을 때 마음에서 발현하는 뜻은 진실하게 될 것이다. 엄명섭은 이러한 수양을 통해 학문의 극치를 추구하였다.

학문이란 공부는 마음을 수렴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다. 학문하는데 이러한 한 일이 없다면 그 학문을 할 적에 반드시 진실함이 없을 것이다. 마음이 이미 진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다시 사물이 존재하겠는가? 마음을 수렴하여 몸을 검속하고 몸을 검속하여 일을 성찰하면 이 ‘경’이 이미 확립되었고 이 ‘성’도 또한 드러나게 된다. 이제 이 마음을 수렴하여 얻을 줄을 안았다면 바로 마땅히 ‘경’으로써 공부를 해야 한다. 말과 일이 어긋나지 않고 움직임과 고요함이 어긋나지 않아 이 마음이 마침내 리와 하나가 되어 잠시라도 떠나지 않고서 이루어진 본성을 보존하고 보존하면 어찌 학문 공부의 극치가 아니겠는가?<sup>70)</sup>

즉 마음의 수렴, 몸의 검속, 일의 성찰 등은 ‘경’이 확립되는 것이고 ‘성’도 드러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진실하게 되는 ‘성’이라면 마음을 다하여 본성을 받들게 되는 것이다.<sup>71)</sup> 이와 같이 되었을 때 마음이 리와 하나가 항상 본성을 보존하고 보존하게 되어 학문의 극치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수양이 없는 학문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엄명섭은 “사람은 학문에 힘쓰는 것을 귀함으로 여기고, 학문은 ‘성’을 보존하는 것을 위주로 삼아도, ‘성’은 ‘경’의 덕이다. 마음이 한결같은 ‘경’이라면 본성을 받들고 하늘을 두려워한다”<sup>72)</sup>라고 하여, ‘학문’이 일종의 ‘성’과 ‘경’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겼다. ‘매개적 역할’이란 학문하기 전에는 경건한 ‘경’ 공부를 우선시하고 ‘경’ 공부에 의한 학문이 ‘성’을 보존하면 그 진실한 ‘성’이 현실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학문은 ‘경’의 덕인 ‘성’을 보존하는 것이자, ‘경’은 ‘성’을 요체로 여기는 것이다.<sup>73)</sup>

주지하다시피, 공자의 학문은 인(仁)을 추구한다. 때문에 『논어』에서 “인(仁)에 뜻을 두면 악함이 없다”<sup>74)</sup>라고 한 것이다.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이면서 사람에게 내재한 것이다.<sup>75)</sup> ‘인에 뜻을 둔다’는 것은 보편적 마음과 자신이 타고난 본성의 이치에 뜻을 두고 조금의 미진함도 없이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이다. 주희는 “뜻을 둔다는 것은 마음이 가는 것이다”라고 주석하면서 마음이 ‘인’에 있다면 반드시 악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sup>76)</sup> 이에 대해 엄명섭은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68) 『敬窩私稿』(上) 書「與張殷植(乙酉)」, 352쪽: 收心之要, 只是敬之一字可以該盡矣.

69) 『敬窩私稿』(上) 書「答曹秉玉(丁亥)」, 349쪽: 若尊此性而師之奉之, 以每每聽命焉, 安有如此循物出入之妄意也哉? 敬之爲義, 心自奉性而不敢違越之謂也.

70) 『敬窩私稿』(上) 書「與沈熙植(丁亥)」, 356쪽: 學之爲工, 莫切於收心, 學而無此一事, 其爲學也, 必無誠矣. 心既無誠, 則豈復有物乎? 收心而檢身, 檢身而省事, 此敬既立, 此誠亦著矣. 今知收得此心, 正宜敬以做工. 至於言事無違, 動靜無違, 此心終與理爲一, 而須與不離, 成性存存, 則豈非學工之極矣乎?

71) 『敬窩私稿』(上) 書「與曹秉玉(一名基玉○丙戌)」, 346쪽: 誠身者, 豈可不盡心奉性? 참조.

72) 『敬窩私稿』(下) 書「告姪裁文及子裁武(丙戌)」, 491쪽: 人以務學爲貴, 學以存誠爲主, 而誠是敬之德也. 蓋心之一敬, 奉性畏天.

73) 『敬窩私稿』(上) 書「與姪裁式(一名在耕. 丁亥)」, 356쪽: 夫學以敬爲徹上徹下之道. 敬又以誠爲要. 참조.

74) 『論語』 卷4 「里仁」 <第4章>: 子曰: “苟志於仁矣, 無惡也.”

75) 오하마 마키라 지음, 이형성 옮김, 『범주로 보는 주자학』(예문서원, 1997년), 437쪽.

76) 『論語集註』 卷4 「里仁」 <第4章>: 志者, 心之所之也. 其心誠在於仁, 則必無爲惡之事也.

무릇 마음은 기가 발현한 것으로 작용이다. 본성이 없으면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없다.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이 본성에 근본할 적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대개 본성은 리이니 깨달음도 없고 작위도 없다. 마음은 기이니 깨달음도 있고 작위도 있다. 이 본성과 마음이 합하여 일체가 되었을 적에 만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천하의 일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다. 그 발현하는 바의 시초를 논하면 본성이라고 말하고, 마음이 생각하는 바에 연유하여 발현한 것은 감정이 된다. 감정이 생각하는 바에 연유하여 헤아리며 비교하고 도모하며 다스리는 것을 의도[意]라고 한다. 의도가 헤아리며 비교하고 도모하여 그 시비와 취사의 구분을 결정하는 것을 뜻[志]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르면 마음은 생각하지 않음이 없고 생각은 익숙하지 않음이 없기에 일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무릇 일의 성패는 뜻이 정해지고 확립되는 것에 연유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sup>77)</sup>

위의 글은 엄명섭의 나이 83세(1988년) 때 피력한 것이다. 유학은 ‘인’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그 마음이 ‘인’에 뜻을 두었다면 마음의 심리적 여러 단계를 거쳐 바로 본성과 마음이 일체가 되는 것이다. 즉 “본성과 마음이 합하여 일체가 되었을 적에 만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천하의 일을 성취시켜 주는” 경지이다. 엄명섭은 마음 수양에 의한 ‘인’에 뜻을 두는 ‘성심합일체(性心合一體)’를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이다. 자기의 하는 직분에 충직하고 거짓 없는 진실을 추구할 적에 기만이 없는 마음 보존이 되는 것이다.<sup>78)</sup> 마음이 본성과 합일되는 ‘성심합일체’의 의식은 자아의 도덕적 실제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계승하여 활용될 만한 요소가 적지 않다 하겠다.

## 5. 맺음말

경와 엄명섭은 일제의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해인 1906년에 태어났다.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이후 점차 한국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일제의 모든 교육은 식민지를 위하는 것이었다. 당시 엄명섭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일제의 교육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유교적 전통의 학문을 닦고 그에 의거한 교육에 힘썼다. 광복 이후, 향리에서 편안한 삶을 도모할 수도 있었겠지만, 남다른 학구열로 전주의 최학자로 불리는 금재 최병심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다. 간재 전우의 고족제자였던 최병심은 전주향교를 중심으로 구국의 의지와 유학사상 고취에 선도적 역할도 하였다.<sup>79)</sup>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유교문화와 그 사상이 단절될 무렵, 엄명섭은 전주로 이거하여 스승의 뒤를 이어 전주향교와 송천동에서 저술연찬과 강학활동에 전념하였다.

앞서 살펴본 엄명섭의 수도적 유학계승과 마음수양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77) 『讀書記疑』『論語』「里仁第四」：心之所之也。○凡心氣之所發，用也。無性則無心，無心則無思。今此心思本於性而然矣。蓋性理也，無覺無爲；心氣也，有覺有爲。此性心所以合爲一體，而開物成務者也。論其所發之始，則曰性；因心之所思而發爲情。情因思之所發，而計較謀略曰意；意因計較謀，而決定其是非取舍之分曰志。至此，則心無不思，思無不熟，而事將成矣。凡事之成否，莫不由志之所定所立也。

78) 『敬窩私稿』(下) 墓碣銘「族大父廣齋公墓碣銘(并序○己亥)」, 44쪽 : 主忠信而存心不欺. 참조.

79) 당시 최병심은 顧齋 李炳殷(1877~1960)과 전주향교를 중심으로 유교문화에 대한 자존의식을 지키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최병심과 이병은 사후, 이병은의 아들이자 최병심의 문인 李道衡(1909~1974)이 그 뒤를 계승하였다.

뜻을 세우고 독서하면서도 성인을 목표로 하는 학구열을 보였다. 그의 독신호학(篤信好學)의 정신은 공명심과 이욕보다는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전통을 계승하며 그 성인의 지혜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학문의 원류를 탐구하지 않으면 고금의 변화를 알 수 없고 입문의 방법을 잃게 된다는 것을 상기하여 유교적 경전을 탐독하였다. 31년 동안 연찬하여 편술한 『사서삼경집주언해』와 『소학집주언해』 총 35책, 그리고 『독서기의』 9책은 공자의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정신이 깃든 것이자 유학사상에 대한 교학적(敎學的) 탐구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우의 ‘성사심제설’을 전개하면서 그 본성과 마음의 상호관계를 심도있게 밝혔다. 특히 20여 년 동안 철학적 고뇌로 연표한 성천심지설(性天心地說)은 전우의 성존심비설(性尊心卑說)의 영향을 넘어 “천존지비(天尊地卑)”라는 『주역』의 우주론을 인간의 심성론에 적용하여 천인합일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특히 83세 때 마음수양의 논리로 제시한 “성심합일체(性心合一体)”의 논지, 즉 자아의 도덕적 실제성을 지극히 실현하는 의식도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엄명섭은 새천년을 향하는 초기까지 전주에서 강학활동과 유교문화를 보급하는데 노력하다가 2002년 향리로 돌아와 향년 98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였다. 그의 주자학 이해를 위한 유교경전언해 및 편서저술 작업은 다음의 한시 한 수를 통해 그의 내심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文明敎俗洽吾東 文明과 교화 풍속 우리나라에 젖어  
 道學由來禮義同 도학 유래하였으니 예의 같아졌네.  
 前聖後賢其揆一 前대 성인과 후대 현인, 그 법 한결같아  
 守來規矩續無窮 지켜 오는 법 끝없이 이어진다네<sup>80)</sup>

결론적으로 그의 수도적 유학계승과 마음수양의 자세는 한말유민의 선비로 일제강점기 이후 단절될 위기의 유교문화를 재건하고 주자학(성리학)의 올바른 계승과 교육을 통해 그 실질적 내용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맑고 선한 마음의 허령성을 통해 본성과 일치하려는 도덕적 삶을 추구하려는 것도 내포하고 있었다.

80) 『敬窩私稿』卷1「偶吟」

## 【참고문헌】

- 『敬窩私稿』, 광명문화사, 2005년.  
『栗谷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58년.  
『良齋先生全集』, 보경문화사, 1984년.  
『論語』, 『論語集註』(『經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8년.  
『大學』, 『大學章句』(『經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8년.  
『孟子』, 『孟子集註』(『經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8년.  
『周易』, 보경문화사, 1983년.  
현상윤 저, 이형성 역, 『현상윤의 조선유학사』, 2010년.  
고교진 저, 안병주·이기동 역, 『李退溪와 敬의 哲學』, 신구문화사, 1986년  
皮錫瑞 著, 李鴻鎮 譯, 『中國經學史』, 동화출판공사, 1984년, 1쪽.  
오하마 아끼라 저, 이형성 역, 『범주로 보는 주자학』(원제: 朱子の哲學), 2007년.  
이상익, 『기호성리학논고』, 심산, 2005년.  
풍우(馮寓) 저, 김갑수 역, 『천인관계론』, 신지서원, 1993년.  
송준오·송만호 편, 『農山 申得求의 天說·天人辨』, 도서출판 선명, 2007년.  
호남한문학연구소, 『20세기 호남 한문 문집 간명해제』, 경인문화사, 2007년.  
황준연, 「한말 호남 유학계의 성리사상과 현실대응」, 『한국유학사상대계』(Ⅲ), 한국국학진흥원, 2005년.  
오종일, 「性師心弟說의 性理學史的 意義」, 『良齋思想研究論叢』 제1집, 간재사상연구회, 1994년 6월 18일.  
이형성, 「顧齋 李炳殷의 學問과 思想」, 『儒教思想研究』 제35집, 한국유교학회, 2009년 6월 30일.  
이형성, 「欽齋 崔秉心の 性理思想」, 『良齋學論叢』 제13집, 간재학회, 2012년 2월 29일.  
이은혁, 「敬窩 嚴命涉의 學問과 思想」, 『간재학논총』 제23집, 간재학회, 2017년 2월 29일.

敬窩의 憂患意識과  
修己復禮

이은혁(한국전통문화대학교)

# 敬窩의 憂患意識과 修己復禮

이 은 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I. 서론
II. 경와의 우환의식
1)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처세와 우환의식
2) 경와의 우환의식
III. 修己와 道學의 계승
1) 宗經과 도학전통
2) 性善과 修己修養
3) 敬과 誠과 勤
IV. 결론

## I. 서론

본고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지식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탐색하기 위한 글이다. 시대가 교체되는 대전환기에 다양한 처세론과 대응책이 출현했지만, 유학자들의 대처는 단지 대의명분을 내세워 저항할 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유학자들은 일제의 강압적인 신문화정책에 일제히 분개하며 난세를 우려하였다.

경와 엄명섭은 격변의 20세기를 온전히 살다간 유학자이다. 을사늑약 이듬해 태어나 2003년 서세하기까지 98세의 천수를 누리며 격변의 시대를 살았다. 그 또한 유자로서 난세에 깊은 우환의식을 갖고 있었다. 우환의식은 『주역』 「계사전」에서 처음 언급되지만<sup>81)</sup> 춘추전국이라는 분열의 시대를 살았던 공자와 맹자에 이르러 구체화된다. 공자가 “붕황이 이르지 않고 하도가 나오지 않으니 나는 그 만두리라.”<sup>82)</sup> 한 것, 그리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띄워 바다에 뜨리라.”<sup>83)</sup>고 한탄한 것은

81) 『周易』繫辭下傳 7장, “作易者, 其有憂患乎?”

82) 『論語』子罕 8장, “子曰: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

83) 『論語』公冶長 6장, “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우환의식이 발로되어 시대를 한탄한 말이다. 따라서 우환의식이란 개인적인 걱정보다 시대와 국가 내지는 문화전통의 쇠망을 근심하는 선각자의 시대의식이다.

일제강점기에 지식인들의 처세는 다양하였다. 국권을 회복하지는 復國派와 일제에 빌붙는 附日派가 대립하였고, 신구를 병행하여 대세를 따르는 이들도 있었다. 복국파는 전통문화의 수호를 고수하고, 부일파는 신문화의 수용을 주장하고, 병행파는 갈등을 통해 결국 신문화를 수용하였다. 난국에서 이념이 대립하며 갈등은 깊어지고, 광복 후에도 일정기간 지속되었다. 이 시기 경와는 신구에 대한 심적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유가의 문화전통을 고수하고 조선의 도학을 전승하는 수구파로서 일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부일파나 병행파와는 분명히 다른 곧은 유학자였다. 경와 역시 시대를 우려하는 우환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우환의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도학의 단절이고 하나는 유가전통의 퇴락이었다. 전자는 순수학문에 대한 우려이며 후자는 민족문화에 대한 근심이다.

경와는 이 두 가지 우환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학과 강학을 병행하였다. 도학은 조선 사람의 도맥을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간재의 性師心弟說을 따라 性天心地說<sup>84)</sup>로 규정하였다. 강학은 교육을 통해 유학종자를 육성한다는 입장에서 修己를 바탕으로 삼아 권학하였다. 이 두 가지를 실현하는 것이 경와의 시대적 사명이었다.

이에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한시를 중심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경와의 『경와사고』에 수록된 한시는 모두 740여 수이다.<sup>85)</sup> 그 중에서 우환의식과 유가적 수양에 관한 시를 가려 뽑아 분석하고자 한다. 한시는 문학의 한 분과로서 그 예술성을 논하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입장을 달리하여 한시가 즉흥적이고 간편하여 隨時로 발로하는 감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로써 한시를 통해 경와의 학문적 체계와 지향, 나아가 時勢에 따른 내적 의식의 변화 등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II. 경와의 憂患意識

### 1.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처세와 우환의식

일제강점기에 지식인들의 처세는 대략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일제가 제시하는 모형을 답습하며 개화의 시류에 편승한 쇄신적 유형이고, 둘째는 민족적 전통을 고수하며 완강하게 신문화를 배척한 수구적 유형이고, 셋째는 두 유형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신구병행의 유형이다. 이런 유형을 크게 대별하면 守舊와 刷新으로 귀결할 수 있는 바, 두 기치는 불가피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

84) 『敬窩私稿』下 p.508, “性天心地 罔敢易位. 右二句, 是余夢餘所得之言也. 其意以爲性心尊卑之分, 位有如天地之上.” 이에 관한 한시도 문집에 보인다. 452.<老年感吟> 【庚午陽念三】: 性天心地位无易, 爲學工眞余晚覺. 心性尊卑於此別, 性師心弟知先卓.

85) 본고를 작성함에 경와의 손자 엄찬영의 초고번역본에 힘입은 바 크다. 참고로 741수에 문집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논문에 소개된 한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열람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는 형국이었다. 그것은 전통에 맞서 쇄신으로 일컬어지는 신문화의 유입이 강압에 의한 타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1922년 5월, 『개벽』이라는 잡지에 게재된 春園 李光洙의 「民族改造論」<sup>86)</sup>은 앞서 제시한 유형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지식인이 앞장서서 민족을 개조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장문의 논설로 국민을 계도하려 하였다. 이 논문은 발표 당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논리적 부당함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성을 인위적으로 개조한다는 자체가 타당하지 못했다. 辛日鎔<sup>87)</sup>의 즉각적이고도 통쾌한 반론<sup>88)</sup>이 이를 대변한다. 반면 수구적 유형은 일제가 강요한 창씨개명과 薙髮을 거부하고 전통적 생활을 고수하면서 끝내 유학자로서의 삶을 이어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학문과 교육이라는 두 길을 걸어야만 했다. 이들에게 도학의 계승과 전통적 가치관념의 수호는 절실한 시대적 사명이었다. 암울한 세상에서 가치관의 변질과 도통의 단절이라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은 당연하다. 울분을 끝내 견디지 못한 이들은 순절로써 그 의리를 대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구를 병행한 이들은 난세를 직시하고 활로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 그 정신은 간직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을 따라 신문명을 수용한 부류이다. 구학문을 닦은 후 신학문을 병행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일본유학을 감행하여 광복 후에 입신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대두한 守舊와 刷新은 시대가 낳은 대립적 명제였다. 두 명제 중 어느 방향이 옳으나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학자들은 新舊의 대립구조에서 일제가 전통적 관습을 강제로 改新하는 것 자체를 가장 큰 위기로 인식하였다. 개화기에 東道西器라는 다소 이중적인 가치관이 대두한 것은 불가피하게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정신만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역설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新’에 대한 주장은 입장에 따라 달랐다. 海鶴 李沂(1848-1909)는 1907년 을사오적을 처단할 목적으로 동지들과 自新會를 조직하고 쓴 「취지문」에서 ‘나로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는 自新論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天地之道가 極於舊而統於新호니 日月之大明과 寒暑之迭行이 皆有乎時라. 故로 國舊而不新則必至於亡호고 人舊而不新則必至於死호니 嗚呼라 今日我韓之勢果何如耶아. 五百年政治는 皆已腐敗矣요. 三千里疆土는 皆已荒陳矣요. 二千萬人口는 皆已奴隸矣라. 於是而猶不思改絃易轍호고 世之拘儒曲士가 每以守舊二字로 作爲嚆矢호야 以欺天下호야 春至而自樂枯萎호고 日出而自處昏閔호고 腐敗者不可復生矣요. 荒陳者不可復起矣요. 奴隸者不可復免矣니 此는 吾輩所以太息痛哭而自新會之不得不設也. 然이나 自新者는 非待人新之라 卽自我新之니 新之誰何호 淨洗腦髓호야 以發新思想호고 竭盡心力호고 索還人權호야 以立新世界가 此乃吾會之前頭期望所在니 惟願同志諸君子는 其各勉哉어다.<sup>89)</sup>

이 글에서 해학은 도리어 守舊를 비판하고 있다. 다만 拘儒曲士가 주장하는 수구는 결국 부패와 荒陳을 초래하였고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통렬한 자아비판이다. 을사늑약이 우리 스스

86) 李光洙, 「民族改造論」, 『개벽』, 1922년 5월호.

87) 辛日鎔 : 1894-1950. 자는 明恒, 필명은 赤笑·尾星生, 이명은 張日星. 의사, 언론인, 사회운동가. 부안출신이다.

88) 辛日鎔, 「春園의 民族改造論을 평함」, 『旬刊 新生活』, 1922년 7월호.

89) 李沂, 「自新會 趣旨文」, 1907. 최명표, 『전북작가열전』, 신아출판사, 2018, pp.10-11에서 재인용.



로 새로워지지 못한 참혹한 결과라고 보았다. 이 글은 시대를 직시하고 저마다 각성해야만 민족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이것은 일제가 강압적으로 우리의 전통을 변개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처럼 한말에서부터 광복 이전까지 유학자들은 항일운동과 더불어 도학의 계승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떠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와의 우환의식은 한말의 대학자 간재 전우(1841-1922)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재가 일제강점기 계획도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지도한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제자 금재 최병심(1874-1957)은 일제강점기에 유교적 전통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심히 우려를 표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유교가 쓸데없기 때문에 폐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 놓고 말합니다. 저들이 제향을 철폐하고, 서원을 부수고, 글방을 없애고, 향교를 폐쇄하고, 의복을 바꾸고, 머리를 깎게 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맥락의 일입니다. 오랑캐가 左腹으로 들어가 재앙이 박두하였는데, 지금 만약 그대로 내버려두고 항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유학의 종자를 보존할 수 있는 날은 영영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4천년 道脈이 끊어지느냐 이어지느냐 하는 갈림길이요, 삼천리 儒類들이 생존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시기입니다.<sup>90)</sup>

금재가 1918년(戊午)에 간재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유교적 전통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로 인하여 유학의 도맥이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다. 일제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세도가 막히고 인심이 험악해져 무력함을 보이며 서로 헐뜯다가 급기야 유교무용론까지 대두하는 등 유학적 전통이 절대적 위기를 맞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유학이 전래된 이래 면면히 이어져 온 도맥이 斷續의 기로에 있고, 그 이념을 신봉하며 따랐던 유학자들이 존망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는 말에서 우환의식이 극에 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지금 世道가 결여되고 인심이 험악하며, 또 저놈들의 깊은 속내가 오로지 우리를 바꾸고 멸망시키는 데에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서로 헐뜯고 공격하니, 이는 大命이 이미 가까워 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관의 禍가 눈앞에 임박하니, 확고하고 원대한 志概나 정밀하고 진실한 學力이 있는 자가 아니면 변치 않고 버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sup>91)</sup>

유학자들이 중시하는 義와 禮의 측면에서 일제는 명분을 내세울 수 없었다. 이에 꺾끄러운 유학을 부정하고 정신적으로 무장된 유학자들을 핍박하였다. 날이 갈수록 일제의 감시와 검열이 한층 강화되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권력을 탐하는 유학자를 포섭하여 그를 통해 다른 유학자들을 회유하고 기망하는 일이었다. 이른바 以儒制儒로 칭할만한 사건까지 벌어진다.

鄭萬朝 등 여러 사람이 유교를 진흥시킨다고 일컬으며 무리를 집합시키고 있다고 들은 듯합니다. 자신 스스로 머리를 깎고 또 合邦詔를 지은 자가 孔敎를 높인다면 사람들이 누가 이를 믿겠습니까. 유가의 학술에 수치와 누를 끼치기에

90) 『欽齋文集』前篇 第3卷, 「上艮齋先生(戊午·1)」, “且時輩揚言“儒敎無用, 不可不廢.” 彼撤享·毀院·罷塾·廢校·改服·薙髮, 是其一串貫事也. 夷入左腹, 火已迫頭, 今若任佗, 不爲抗爭, 則吾儒種子, 永無可保之日矣. 此政四千年道脉斷續之機, 三千里儒類存亡之秋也.” 선중순 외, 『금재문집1』, 호남고전문학연구원·전라북도·전주시, 2018, pp.343-344.

91) 『欽齋文集』前篇 第3卷, 「上艮齋先生(戊午·4)」, “見今世道缺巽, 人心險巖, 且彼醜深臟專在易명, 而顧我罔覺, 自相噬攻, 此蓋大命既近, 有不可避故也歟. 最是衣冠之禍, 迫在朝夕, 如非確遠志槩·精實學力, 有難抵住不移矣.” 선중순 외, 같은 책, p.347

알맞을 뿐입니다.<sup>92)</sup>

친일 유림의 대표자로 일컬어지는 정만조(1858-1936)가 유교를 진흥시킨다는 명목으로 손수 薙髮하고 유학자들을 회유하고 선동한 것을 보더라도 당시 유학자들이 이미 적지 않게 변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의 강압에 유학자들이 무력감을 보이자 의식 있는 사람은 기호 유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간재에게 직접 나서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지난달에 咸陽의 主事 鄭在鎬가 와서 말하기를, “지금 온 나라가 모두 스스로 단결하여 ‘나라를 회복시키자.’ 말하는 이도 있고 ‘일본에 붙자.’ 권하는 이도 있는데, 유독 土農 한쪽만이 변함없이 개의치 않으니, 저들 역시 쓸모없는 버릴 물건으로 보아 다시는 의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복을 바꾸는 한 가지 일은 큰 의리가 달려 있는데, 인심을 두루 살펴보면 특별히 나서서 죽음으로 항거하는 자는 없고 단지 모두 위축되어 겁먹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다시 이 기회를 잃어 끝내 단발을 하지 않는 약간의 사람들이 협박에 못 이겨 단발을 하고 차례로 흑색 의관으로 바꾸어 입게 된다면 人道는 스스로 없애 버려 이른바 ‘나라의 元氣’라는 것을 영원히 거두어 보존할 가망이 없게 될 것이니, 이후로 맞아 죽더라도 다 말라 버려 피비린내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을 그대의 師門이 그 책임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반드시 명백한 문자로 의리를 강조해 진술하여 온 나라 사람들을 깨우치고, 저들 역시 임금을 저버리지 않는 土民의 단결된 心體를 알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들이 설사 해를 가하고자 한들 팔십 노인을 어찌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적시이니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소자가 답하기를, “인을 담당해서는 스승에게도 사양하지 않는 법이니, 이미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이 급박하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어찌 직접 행하지 않으십니까?” 하자, 정재호가 말하기를, “지위도 없고 명망도 없는 자는 전혀 실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도 세도(世道)를 자임한 자라서 말한 것이고, 또한 명색이 조선인이라서 말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sup>93)</sup>

당시 민심이 ‘나라를 회복시키자[復國]’는 쪽과 ‘일본에 붙자[附日]’는 쪽으로 양분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학이 몰락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유학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改服과 薙髮 두 가지였다. 그것이 유학자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개복과 치발을 한다면 그것은 유학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며, 반면 일제가 강요하는 개화를 전면 수용한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조선인의 威儀가 아닌 천박한 夷狄의 모습이라 여겼다. 그럼에도 일제의 문화침탈에 허무하게 무너져 이적의 모습을 따르는 것은 그동안 유학자들에게도 일면 책임이 없지 않았다. 앞서 해학이 제기한 守舊에 대한 비판도 이에 다름 아니다.

말세 이후로 위아래가 모두 虛를 숭상하고 實을 버려서 끝내 世道와 인심을 거두어 되돌리지 못하더니 국가의 운명이 무너짐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습니다.<sup>94)</sup>

92) 『欽齋文集』前篇 第3卷, 「上良齋先生(戊午·12)」, “似聞鄭萬朝諸人, 稱以振興儒教, 集合徒衆云. 身自剃鬚, 且作合邦詔者, 乃尊孔教, 則人誰信諸? 適足貽儒術之耻累而已.” 신중순 외, 같은 책, pp.362-363

93) 『欽齋文集』전편 第3卷, 「上良齋先生(戊午·13)」, “去月咸陽鄭主事在鎬來言, 今學國皆自團結, 或言復國, 或勸附日, 獨土農一邊, 依舊無係, 彼亦視以無用棄物, 不復寘疑. 然改服一節, 大義所係, 而周察人心, 別無出擔死抗者, 只皆縮首喪氣. 若復失此機會, 竟使如干保髮者, 困於脅迫, 次第變黑, 則自蔑人道, 所謂國之元氣者, 永無收保之望, 從後雖被打殺, 亦無腥臭矣. 此事尊師門不得不擔其責, 必以明白文字, 指陳義理, 布曉全邦人民, 使彼亦知土民不復君之團結心體, 不敢犯手, 可也. 彼設欲加害, 其於八十老人何? 此正時哉! 不可失云云. 小子答以‘當仁不讓於師, 既知當爲, 且云事迫, 則胡不自行?’ 鄭謂: ‘無位無望者, 萬無實效故也. 今此之言, 亦爲身任世道者發, 且爲鮮人名色者發也云云.’” 신중순 외, 같은 책, pp.364-365

94) 『欽齋文集』前篇 第3卷, 「上良齋先生(庚申·1)」, “夫自叔季以來, 上下皆尚虛而遺實, 竟使世道人心, 收挽不得, 以至大命隕止而極矣.” 신중순 외, 같은 책, p.371

금재는 유가경전에서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誠實’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운명이 이처럼 위태로워진 것은 虛를 숭상하고 實을 버린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성실로 되돌리는 것만이 세도와 인심을 되돌리는 궁극적 해결책이라 믿었다.

응당 겉모습의 빛나고 화려함을 깎아내고 밑어내 허위를 살피고 근본을 도타이 함으로써 『맹자』의 ‘思誠’과 『중용』의 ‘明誠’과 『대학』의 ‘誠·正’에 종사하여 공자의 ‘尊誠’과 『주역』의 ‘立誠’에 도달해야 하니, 그렇게 된다면 거의 선생님의 法門의 종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sup>95)</sup>

그러나 이러한 우환의식이 채 결실을 보기도 전에 附日쪽에 섰던 춘원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을 발표하였고, 이해 간재는 세상을 떠났다.<sup>96)</sup>

금재의 이 같은 신념은 일제강점기라는 수난을 겪으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그리고 그 신념은 경와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 마침내 광복을 맞이한 이듬해 경와는 전주의 금재를 찾아 집지의 예를 행하고 문제자로 입문하였다. 비록 일제가 항복하고 물러갔지만 이미 세도와 인심은 변하였고, 여전히 유학적 전통을 떨치고 배척하는 상황은 지속되었다. 불혹을 넘긴 경와가 73세의 금재를 스승으로 모신 데에는 시대적 우환의식이 상통하였다. 금재가 시대적 격변기에 타고난 성품을 굳건하게 지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敬과 誠이다. 이것은 훗날 경와 학문과 수양의 지표가 되었다.

## 2) 경와의 우환의식

경와는 불혹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를 고스란히 겪었다. 이 시기에 경와는 고향 곡성에서 유교의 전통문화를 고수하며 도학과 강학을 병행하였다. 이를 스스로 ‘산중은거’라고 칭하였다. 마침내 일제가 물러간 뒤 고향을 벗어나 전주의 금재 최병심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였다. 실로 긴 암흑기를 벗어나 도학의 계승이라는 새로운 사명감을 비로소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십나라 오랑캐들이 항복하고 물러간 지 2년, 미군들이 거리에 가득하고 새로운 학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감히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을 배척하는 것이 정도에 지나치므로, 선생께서 이르시기를, “저 가르치는 자들은 온갖 수단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모리배들로서 도무지 학문과 식견이 없고 예의와 염치를 알지 못하면서, 다만 스스로 시속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무리들과 같을 뿐이다.” 하시면서, 늘 세상의 도의를 돌아보고, 정사를 걱정하며 탄식하였다.

해방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울분을 토하며 복수를 하였고, 온통 붉은 산처럼 공산주의자들의 세상이 되었다. 선생이 앞산을 가리키며 “네가 사는 곳도 이와 같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그렇습니다.”고 답하였다. 선생께서는 장차 큰일이라고 탄식하시며 묵연히 계시다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리분별을 못하면, 장차 머지 않은 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셨다.<sup>97)</sup>

95) 『欽齋文集』全篇 第3卷, 「上良齋先生(庚申·1)」, “要當剗采鏗, 審僞敦本, 以從事乎孟子之思誠·思傳之明誠·曾經之誠正, 以達於孔子之存誠·義易之立誠, 則庶不差乎先生法門之宗旨矣”. 선종순 외, 같은 책, p.372

96) 이광수가 「開闢」에 「민족개조론」을 발표한 것이 1922년 5월이고, 간재가 서거한 것은 같은 해 7월 4일이며, 같은 달 신일용이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평함」(旬刊 『新生活』, 1922.7)이라는 반론을 통해 통렬히 비판하였다.

97) 『舜山日記』, 丙戌(1946) 八月 十六日, “時島夷退伏, 始二年, 而洋人滿市, 主新學者, 敢斥舊學甚急, 先生曰: 彼教授輩, 都無學識, 不知有禮義廉恥, 只自趨時附勢如此. 每顧世道, 正可憂歎. 解綬後, 民無禁厲, 山皆赭赤. 先生指前山, 而問曰: 子之所居, 亦如此否? 對曰: 然. 先生嘆且默然而曰: 國人認識, 姑遠且難矣.”

광복 후 이듬해, 41세의 경와가 전주의 금재를 찾아 스승으로 모시던 날에 함께 나눈 대화를 일기로 쓴 것이다. 이 글에서 당시 상황과 시대적 우환에 공감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빛을 되찾았지만 이미 세도가 변하여 신학문을 주장하는 이들이 유교적 전통사상을 배척하는 일이 위기로 작용하였다. 그동안 윤리적 가치로 여겨왔던 예의와 염치를 저버리고, 시속을 따르고 권력에 빌붙어 영리를 탐하는 것을 한탄하였다. 금재와 경와가 사제의 인연을 맺는 날, 함께 시세를 우려하는 우환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우려를 타파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세도가 창창하여 나와 어긋나기에	世道偃偃與我違
은거하여 주경야독 의관을 지킨다네	隱居耕讀守冠衣
들보의 제비 새끼 나는 법을 익히고	棲樑新燕知飛習
계곡 나선 피꼬리 벼를 불러 돌아가네	出谷晚鶯喚友歸
젊어서는 경륜하며 바른 길을 지키고	早歲經綸衛正路
늙어서는 한가하게 밭떼기를 경작하네	暮年閒趣付畬畦
천년의 어진 공부 어디에 있을까	千秋賢業知何在
몽교관을 아는 자가 드물구나	夢覺一關識者稀 640.<感懷> <sup>98)</sup>

세상의 도가 혼탁해져 영리만을 탐하는 세대가 경와의 순수한 학문적 입지와는 맞지 않았다. 은거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데서 난세임을 유추할 수 있고, 주경야독하며 의관을 지킨다는 말에서 일제의 강압에도 개복과 치발을 하지 않은 채 전통 유학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암울한 현실에서 자신만의 수양을 통해서 세상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일종의 회한이 서려 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들보의 제비는 힘찬 날개 짓을 배우고, 서식지를 떠난 피꼬리도 때가 되면 함께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처럼 나라의 세도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도학지는 찾을 길 없고, 격물치지하여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자가 드뭇을 한탄하였다. 이는 세도의 쇠퇴를 한탄하는 우환의식에다 자신의 모습을 견주며 일말의 희망을 기약하는 모습이다.

태평성대 맑아질 날 언제 오려나	河清及日幾多時
책에 묻혀 백의로 늙는 줄을 모르네	不覺卷中老白衣
중화가 오랑캐 됄을 어찌 차마 보고	變夏用夷那忍視
임금이 없는 나라 어디로 돌아갈꼬	無君有國適安歸
깊은 계곡 난초 멀리까지 향기 나고	蘭生幽谷聞香遠
천풍타고 내려온 봉황 가지 골라 앉네	鳳下天風擇止枝
위기지학이 학문의 의의임을 안다지만	爲己終知爲學義
보배 품음이 왜 손해인지 아는 이 드무네	懷珍何損識人稀 638.<憂世感吟> <sup>99)</sup>

98) 『敬窩私稿』上, 卷1, p.190

99) 『敬窩私稿』上, 卷1, p.189

제목에서 보이듯 어지러운 세상을 근심하며 읊은 시이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變夏用夷라는 말과 無君이라는 말에서 일제강점기임을 짐작케 한다. 위기지학이 자기수양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는다면 위인지학은 외적 가치 지향의 학문이다. 학문을 하는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그것을 일평생 올곧게 실천해나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誠이 중요하고 敬이 강조된다. 혼탁해진 난세에 유학의 도통을 지키며 도학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깊은 계곡에서 향기를 발하는 난초나 바람을 타고 내려와 가지를 골라 내려 앉는 봉황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사실을 익히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앎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난세이다. 경와는 지행의 불일치를 폐단으로 인식하고 眞知實踐을 강조하였다.<sup>100)</sup>

하늘은 말없이 덮어주어 고루 길러주고	天載無言覆育均
혼연한 하나의 이치에 만물이 봄이라네	渾然一理萬斯春
학문에 뜻을 둔 구인지사 끝까지 배양하고	終培志學求仁士
잔인한 마음으로 예덕지인 몰래 싫어하네	暗厭忍心穢德人
뜰에 핀 일천 꽃 도성 거리 이루고	野放千花成紫陌
산에 내리는 연일 비 먼지를 씻어주네	山經宿雨洗烟塵
운림의 맑은 아취 서로가 느낄 때마다	雲林清趣時相得
경치 읊고 모아보니 별미가 새롭다네	題景收來味別新 597.<謾吟> <sup>101)</sup>

세상에 모든 일에는 저마다 이치가 있다. 하늘은 말없이 세상을 덮어주어 만물을 고루 자라게 한다. 그 혼연함은 하늘의 이치이지만 그로 인해 세상 만물은 봄을 맞는다. 만물의 하나인 인간사도 마찬가지이다. 학문에 뜻을 두고 인을 구하는 선비는 끝까지 북돋아준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반면 악행을 일삼으며 잔인한 마음으로 덕을 더럽히는 사람을 싫어한다. 대놓고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재앙이 들이닥친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봄이 되면 뜰에 꽃이 피고 비가 내려 먼지를 씻어주지만 자연의 신비한 이치를 깨닫고 만끽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맑아야 한다. 마음이 맑은 사람만이 비객 날 운림의 청취를 만끽하며 시를 지을 수 있다. 그것은 일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삶의 맛이다. 이 시는 경와가 은거하면서 자연에 감응하여 지은 시인 듯하다. 얼핏 평범한 일상 같지만 어지러운 세상에도 봄은 오며, 그 맑은 흥취를 즐기는 구인지사가 존재함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우환의식은 우려와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국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벗으로 인을 도우면 덕이 절로 높아지니	以友輔仁德自崇
절절시시하는 의의가 그 가운데 있다네	惓惓一義在其中
쇠퇴한 세상에 진정 배움 없음을 탄식하며	堪歎衰世眞無學
성현의 책 읽고 성현의 공 세우기를 바라네	願讀聖書樹聖功 37.<勸學> <sup>102)</sup>

100) 줄고, 「敬窩 嚴命變의 學問과 良齋思想의 理解」, 『漢文古典研究』,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p.393

101) 『敬窩私稿』上, 卷1, p.177

경와는 이 시에서 세상이 쇠퇴하여 진정한 배움이 없음을 탄식하였다. 일제강점과 6.25를 거치면서 나라는 황폐해지고 인심은 거칠어져 세도가 쇠퇴하였다. 혼자 힘으로 시세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유학의 종자를 길러 힘을 합치면 세도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 첫걸음은 뜻을 같이 하는 벗들이 輔仁하며 聖學을 공부하는 일임을 밝혔다. 개인적인 권학이 아니라 유학의 전통을 책임질 많은 학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경와는 우환의식과 더불어 자신이 곧 儒者라는 입장에서 세도의 쇠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였다. 국가적 우환 속에서 개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그에 대한 우려 또한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세도가 쇠퇴하고 융성함은 사람의 책임	世道汚隆責士林
사문이 강론치 않아 나의 시름 깊어지네	斯文不講我憂深
그대에게 권하노니 명리를 가까이 말라	勸君莫近名利域
치란의 마지막 관문 이 마음을 높이는 것	治亂終關尙此心 228.<詠示朴相浩及諸生>103)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자행된 조직적인 전통문화 말살은 처참하였다. 세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스스로 ‘사람의 책임’이라고 단정한다.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유학 이념의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리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것을 다시 융성시키는 의무 또한 사람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바람과 같지 않았다. 이미 세도가 기울어 명리를 탐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마음마저 거칠어져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이 엿보인다. 우환의식과 더불어 난국타국을 위한 고민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경와가 유학전통의 단절이라는 우환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공들인 일은 교육이었다. 자신의 학문 수양은 물론 講學을 통하여 유가의 사상과 전통문화를 보존하려 하였다. 학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면학을 훈시하고, 또한 개별적으로 권학시를 지어 권면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서를 붙들고 이에 종사한다고 해서 소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스승을 찾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승과 제자 있음을 모르고	世人不識有師生
헛된 교유 지나쳐서 경박하기 그지없네	太向交遊薄且輕
근원을 가려내어 뒤섞인 곳 없게 하면	苟擇源頭無錯處
어떻게 오고 감을 스스로 행하겠는가	如何來去自爲行 232.<偶吟> 其七104)

학문을 하면서 사제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전통이 아니다. 전통이 도통을 전한다는 말로 환치될 수 있기 때문에 도통의 전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유자들은 그러한 도

102) 『敬窩私稿』上, 卷1, p.42

103) 『敬窩私稿』上, 卷1, p.82

104) 『敬窩私稿』上, 卷1, p.84

통의 전승에 무지하였다. 세도가 기운 마당에 유학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위안할 일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학문이 아니다. 경와는 당시 유학자들이 지나치게 교유를 일삼으며 외향적인 학문에 힘쓰는 것을 질타하였다. 경박하다는 말은, 추측컨대 유자를 빗대어 시문을 창수하거나 어떤 논설에 대하여 기준 없이 설왕설래하는 것을 지칭한 말일 것이다. 경와는 그러한 행태를 근본이 없고 실질이 없는 虛學으로 간주하였다. ‘근원을 가려내라’, ‘뒤섞임이 없게 하라’는 훈계는 학문의 근본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경와는 단순히 강학을 통해 유가의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도학의 전승이라는 학문적 목표를 既定하고 이를 실천하였다. 학문을 하는 이가 스승을 모시는 일은 단순히 授業과 解惑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傳道라고 믿었다. 이에 자신부터 스승을 찾아 나섰다. 경와가 당시 기호학파의 영수인 간재 전우의 도학을 사숙하고, 광복 후 그의 제자 금재 최병심을 찾아 사사한 것은 도통의 전수라는 학문적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경와의 학문세계는 크게는 기호학과 계열이며 작게는 간재학파의 道脈에 속하게 되었다.

## II. 修己와 道學의 계승

克己는 자신의 사욕을 이기는 것이며 修己는 자신의 심신을 수양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편벽된 마음에서 벗어지는 사욕을 극복한다는 극기와 달리 修己 修身 修養 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전한 성품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존양성찰하며 늘 경건하고 성실하게 행동함을 말한다. 모두 천리에 도달한다는 입장에서 그 목표는 같지만 강조점에 약간 차이가 있다. 극기는 인욕을 스스로 이겨내는 遏人欲과 흡사한 반면 수기는 천성을 보존하고 발양시키는 存天理와 닮아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인간의 내면을 심성론적 입장에서 心과 性으로 달리 구분하여 본 것이지만 천리를 따라 인간의 본연 지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맥락이 통한다.

경와의 한시를 일별해보면 극기를 직접 언급한 시도 있지만 수기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기에 관한 내용은 다양한 시어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수기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性善과 관련된 시어들이 많다. 수기의 전제조건이라 함은 성선설적 입장에서 선천적으로 순전한 성품을 본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말한다. 경와는 성선적 입장에서 수신하여 본성을 닦아 나가면 누구나 성인처럼 될 수 있다고 학도들을 권면하였다. 性善의 개념은 天性, 性天, 稟性, 彝性 德性 天分 등 다양한 시어로 등장한다.

이러바 ‘극기복례’를 기질과 본성으로 환치해 본다면 기질 변화를 통해 본성을 회복한다는 등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율곡이 언급한 것처럼 기질은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본연지성 자체는 아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을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으로 구분하는 성리학적 입장에서 보

면 공부와 수양의 대상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게 타고난 기질은 변화의 대상이며,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성한 성품은 잘 보존해 따라야 한다. 기질을 변화시키느냐 순성한 성품을 잘 보존하고 따르느냐의 양단에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경와가 학도들에게 권면한 한시에는 기질의 변화보다는 천성을 잘 닦아 대업을 이루라는 훈시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처한 시대와 결부해 생각해볼 때 상당히 특이한 점이다. 동서문명이 갈등하는 국가적 혼란과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시대적 전환을 맞았다. 그 격변기에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적 가치관을 보존하는 쪽에 사명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도들에게 때마다 한시로써 권면하였다.

광복 후 유교적 전통문화와 가치관의 수호를 위해 일생을 바친 경와의 입장에서는 기질변화라는 교육적 계도보다는 자신의 순성한 성품을 잘 지키고 이를 닦아나가야 한다는 수양론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억제 내지는 계율적 금기보다 ‘스스로 발견하고 힘쓰라’는 권장과 자율적 방임에 가깝다. 수동적인 공부보다 능동적인 성찰을 중시한 것을 보면 내심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였음을 짐작케 한다.

경와는 시대적 우환을 타파하기 위해 강학활동을 통해 유학의 종자를 교육하였다. 경와의 한시에서 우환의식과 관련하여 교육적 훈시가 담겨 있는 한시만을 별도로 채록하여 그의 학문과 교육적 신념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로운 일이다. 이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와의 권학시를 분석하면 다음 몇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와의 한시 작법은 宗經에 가깝다.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성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문학적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文以載道 사상을 견지하며 도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도학적 전통의 계승이라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둘째, 성리학적 입장에서 復其性の 수양공부를 강조하였다. 셋째, 수기의 방법으로 敬과 誠을 비롯하여 戒愼恐懼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학문적 공효를 기약하였다. 넷째, 시대적 격변기에 은거해 耕讀하며 自오하는 모습이다. 성찰하여 자득의 경지를 자오하고, 한편으로는 후학들을 기대하며 기꺼워하였다. 이는 암울한 현실에서 군자삼락의 하나인 育英의 소소한 즐거움을 표현한 것으로 難中樂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교육적 입장에서 略論하고자 한다.

### 1) 宗經과 도학전통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편벽된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질의 변화를 달리 말하면 인간성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다. 경와가 일생동안 도학적 전통을 이어가면서 일면 후학들과 강학활동을 병행한 것은 시대사적 의미가 담겨있다. 단절의 위기에 처한 도학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유학종자를 기르는 일은 절실한 시대적 사명이었다. 경와는 급변하는 현실에서 세속적 가치의 추구보다 본질적인 인간성 회복을 유념하였다.

경와는 덕성을 얻는 방법으로 독서를 권장하였다. 독서의 대상은 유가경전이다. 경전에 나타난 성



인의 삶을 표상으로 삼아 자신을 반추하고 대업을 이루라는 권고의 시가 유독 많다. 따라서 경전의 구절을 시어로 차용한 것이 많다. 문학적 입장에서 보면 宗經에 해당한다. 유가적 삶을 지향하는 선비로서 귀감으로 삼아야 할 명제들을 제시하여 학문을 권장한다.

인을 함이 나로부터인걸 배움 어떨까	爲仁由己學何如
논어 한 책에 상세하게 실려 있네	詳載魯論一部書
박문에 종사하고 약례를 겸한다면	從事博文兼約禮
석 달 어기지 않을 때쯤 얻으리라	得乎三月不遑餘 30.<詠贈姜五熙>105)

‘인을 행하는 것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으니’ ‘박문과 약례’를 겸하고서, 안연이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仁을 어기지 않았던’ 그 남짓 지속한다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권면한 시이다. 시 구절마다 『논어』의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다. ‘인을 행함이 자기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은 경외가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다. 仁은 공자의 사상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인에 대한 문답이 『논어』에 보이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다. 그만큼 한마디 언어로 포괄할 수 없는 큰 개념이다. 그러나 仁을 실천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주자가 ‘心之德 愛之理’라고 풀이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내재한 인간애를 발휘하면 그것이 바로 인의 실천이다. 『논어』를 바탕으로 삼아 박문약례하되 꾸준히 지속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석 달은 天道가 변하는 시간이다. 이 말은 학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아래 소개하는 시는 <偶吟>이다.

인을 함이 자기로 말미암음 의심할 여지없고	爲仁由己更無疑
도를 본체로 함은 잠시도 떠날 수 없다네	體道須臾未可離
안으로 살피는 이 공부 바뀌지 않는다면	內省此工知不易
기미따라 일어나는 상념들 구슬 꿰듯 기록되리	隨機念念貫珠記 178.<偶吟>106)

시제에서 알 수 있듯 평소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낸 시이다. ‘도는 잠시라도 떠날 수 없다’는 『중용』에서, ‘爲仁由己’ ‘內省’은 『논어』에서 차용하였다. 이전과 달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內省’ 공부를 다짐한 점이 주목된다. 문집에 ‘反求’라는 말이 빈출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경전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 같은 존재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반추하며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사사로운 인욕을 막고 순전한 자아를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유가의 윤리적 가치관인 仁義, 孝悌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권면하였다.<sup>107)</sup> 이처럼 宗經의 시법을 즐겨 사용한 것은 학도들이 보다 쉽게 공감하고 삶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唐詩처럼 순수문학적 측면에서 음풍농월하거나 比興을 통하여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문학

105) 『敬窩私稿』上에 빠져 보충한 시이다.

106) 『敬窩私稿』上, 卷1, p.71

107) 『敬窩私稿』上, 卷1, p.41. 31.<詠贈崔鍾澤> 君之爲學是何如, 餘力誦詩又讀書. 仁義施來先孝悌, 踐言德廣實知餘.

적 수사가 적은 것은 그가 처한 시대와 관련이 깊다. 문학성보다는 권학이라는 교육적 관점에서 한시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宗經의 작시법은 문학론에서 이른바 文以載道와 결부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유가적 가치 관념을 절대시하고 도학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문학적 서술방식이다. 경와가 한시론을 피력한 글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기미는 엿볼 수 있다. 『立窩集』 서문에서 “문은 도를 싣는 그릇이다”<sup>108)</sup>라고 운운한 것을 보면 도학적 문학관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와의 한시에도 儒風과 도학전통의 계승을 노래한 것들이 보인다.

문명과 교화 풍속 우리나라 젖어들고	文明教俗洽吾東
도학이 유래하니 예의가 한가지로다	道學由來禮義同
전대 성인 후대 현인 그 법이 같으니	前聖後賢其揆一
대대로 지켜 온 법도 끝없이 이어지네	守來規矩續無窮 32.<偶吟> <sup>109)</sup>

유가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통문화를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도학의 전통이 성대하여 문명이 발달한 中華와 대등한 경지에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학이 계승되어 예의가 높아지고 수준 높은 문화문명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영탄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경와의 도학자적 위치와 결부지어 감상할 수도 있다. 주지하듯 경와는 간재의 재전제자이자 금재 최병심의 제자이다. 당시 良齋 田愚를 도학의 스승으로 추송한 사실과 그의 도맥을 欽齋 崔秉心이 계승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금재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경와는 시대적 격변기에 유가적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도학의 계승이라는 학문적 사명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한국 성리학사의 측면에서 보면 기호학파의 도맥을 계승한다는 자부심이 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가적 전통과 도학의 계승을 노래한 시에서 두 과제가 경와의 시대적 사명이었음을 반증한다. 이들 시는 권학시와 달리 민족적 자긍심과 문화문명에 대한 긍지가 짙게 배어있다.

세상의 도 어느 때나 성군을 내실까	世道那時出聖君
사문을 숭상하는 풍속교화 보기 좋네	好看風化尙斯文
至治는 유가의 학문으로부터 비롯하니	由來至治從吾學
덕교로서 마침내 크나큰 공훈 이루리라	德教終成不世勳
우리나라 성스런 명군 많이 배출하고	國朝多出聖明君
오백년 동안이나 문사를 숭상해왔네	五百年來尙右文
한 맥의 연원 깊은 참다운 도학이니	一脈源深眞道學
남기신 덕 만끽하며 업적을 암송하네	飽來遺德誦前勳 267.<憂學>二首 <sup>110)</sup>

108) 『敬窩私稿』下 「立窩集序」, “文者, 載道之器也 ; 道者, 天理流行之迹也. 文以明道 ; 道以文著, 文之於道所關, 誠大矣.” p.582

109) 『敬窩私稿』上, 卷1, p.42

얼핏 유가를 칭송하는 글로 보이지만, 시제가 <憂學>이라 하였듯 경와가 학문을 근심하며 지은 시이다. 그러나 시 어디에도 근심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당시 암울한 현실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승화시킨 글이다. 세도가 쇠퇴하여 모두가 영리를 탐하지만 자신은 아직도 오백년 유학의 전통을 고수하고 도학의 명맥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절절하다. 이상적인 정치는 유가의 德治이며 가장 존숭을 받아야 할 이들도 儒者라는 말에는 태평시절을 회상하고 동경하는 회환이 감춰져 있다. 경와의 절절한 우환의식이 시구의 내면에 깃들어 있지만 속내들 전혀 드러내지 않은 명시이다.

남쪽 고을에 노나라 풍습이 불어오니	南州吹送魯城風
아름다운 풍속 여기에 있음을 알겠네	美俗從知在此中
외딴 마을 한가로운 고사 말하지 마라	莫道孤村閒故事
삼한 땅에 해와 달이 끝없이 비추리니	韓天日月照無窮 39.<題藥川塾>111)

약천서당에서 강학하면서 잠시 학동들의 면학 광경을 보고 감개 하여 읊은 시이다. 궁벽한 산골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대견함이 물씬 풍긴다. 이로 인해 풍속이 아름다워진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아무리 궁벽한 산골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聖學을 부지런히 갈고 닦으니 그에 대한 영광이 나라에 영원하리라는 민족적 자긍심이 가득하다. 평이하면서도 유학적 전통과 민족적 자긍심이 잘 드러난 시이다.

경와의 고향은 전남 곡성이다. 나지막한 산과 들이 있는 이곳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이웃 고을의 서당을 오가며 강학하고 교유하며 서로를 권면하였다. “재주 있는 몇 사람 책을 지고 와 유학하니, 장차 향그런 덕 들리고 남쪽 고을 들썩이겠네.”<sup>112)</sup> “행단의 그늘 아래에서 만나 강론하고, 도를 논하며 못다 한 정에 갈 줄 모르네.”<sup>113)</sup> 이 시는 1952년 4월 14일이라는 간기가 있듯 광복 후 몇 년이 지나 6.25동란이 일어난 후에 지은 시이다. 당시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유학자로서 후학을 지도하며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다.

말 전하는 한가한 사람 문 두드리지 말라	寄語閒人莫叩門
학도들 독서하는 마루 시끄러울까 두렵네	恐囂諸子讀書軒
게다가 나 고요한 곳에서 참다운 뜻 찾으려	且余靜處尋真意
불러 모았으나 노년이라 혼을 다하지 못하네	收召餘年未盡魂 91.<題聽松塾石扉>114)

이웃 청송서당 학문의 정경을 읊은 시이다. 경와의 강학 터 약천서당에서 멀지 않은 이웃에도 유학을 공부하는 학도들이 많았다. 청송서당은 경와가 자주 들러 권면한 곳으로 관련한 시가 상당수

110) 『敬窩私稿』上, 卷1, p.91

111) 『敬窩私稿』上, 卷1, p.43

112) 『敬窩私稿』上에 빠져 보충한 시이다. <山中卽事> 才子數三負笈遊, 將聞馨德動南州.

113) 『敬窩私稿』上, 卷1, p.52. 84.<拜松潭于昌亭塾> 【壬辰四月十四日】杏檀蔭下來相講, 論道餘情却忘行.

114) 『敬窩私稿』上, 卷1, p.53

보인다. 이 서숙은 좀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본래 그곳 塾長은 小松 鄭在健(1843-1910)<sup>115)</sup>인데 1910년 나라가 강제 병합되자 자결한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경와는 이곳을 자주 찾아 소송 정 선생의 자제이자 지기인 정해동·해석 형제와 교유하며 학도들을 권면하였다. 항일의 성지에서 그들이 가지는 다짐은 남달랐을 것이다. 유학의 전통과 도통의 계승은 이처럼 대의와 명분을 확보하고 지속되었다.

## 2) 性善과 修己修養

경와의 한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권학시가 주류를 이루며 性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선을 강조할수록 수양적 측면이 강해진다. 사서로 보면 『대학』의 ‘明明德’, 『중용』의 ‘明善’과 ‘率性’, 『맹자』의 ‘養性’과 관련이 있다. ‘修己治人’ ‘修身齊家’라는 명제는 유가에서 자기 수양이 치인과 제가의 절대적 선결요건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성품은 선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스스로 자기 내면의 순전한 性을 찾아 닦으면 된다. 그것이 수양이다. 주자의 논리대로 수양의 궁극적 목표는 ‘復其性’이다. 성선을 통한 수양의 강조는 곧 성리학적 사유에 해당한다.

경와는 경전의 내용을 성찰하여 자득하여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글을 읽어 내 마음을 밝혀 나가면	讀書明得我靈臺
선한 본성 이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네	性善從茲可復來
궁극에 나아가 끝내 時位義를 구하면	造極終求時位義
영연한 가슴속에 진정 진애가 없으리라	瑩然胸曲正無埃 248.<偶吟> <sup>116)</sup>

독서의 목적이 마음을 밝히는 데 있으며, 그로 인해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수양론이 거저에 자리한다. 3구의 ‘時位義’는 간재 전우의 편지글에 보인다.<sup>117)</sup> 자신을 수양하여 본성을 회복한 후 알맞은 때에 합당한 자리가 의리에 맞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본성의 회복을 선결로 두고 시위의를 나중의 일로 논한 것은 자기수양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자기수양이 결국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공효를 발휘해야만 실질적인 학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까지 논하였다. 다만 그것은 時勢와 地位와 義理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실행에 옮길 수 있음을 말하였다.

하늘이 준 선한 성품 마음속에 갖추고서	自天性善具心中
이를 받들어 어김없음을 중도라 이른다네	奉此無違是謂中
일상의 彝倫일랑 경전 밖에서 구하지 말고	日用不求彝典外

115) 鄭在健 : 자는 啓周·景中, 호는 小松. 본관은 迎日, 玉果 출신이다. 메천 황현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침실에 “亡國之臣 義不可以苟生 誓不在於明治之世”라고 써 붙인 뒤 자결하였다. 고흥의 德陽書院, 진안의 永光祠, 驕山廟에서 배향하고 있으며, 보성의 竹谷精舍에서 유문을 수습하여 『小松遺稿』 1책을 간행하였다.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116) 『敬窩私稿』上, 卷1, p87

117) 『良齋先生文集前編』 권10 <答黃瓚奎 己酉> a332\_457b “大抵君子之行, 有時位義三字. 時可爲矣, 而位不當, 則義未可動也. 如舜伊未遇堯湯, 則終莫能自用也. 時可矣位當矣, 而義不合, 則亦不得爲也. 如孔孟攝相賓卿, 而時君不用則去矣. 世俗識既低矮, 心亦傾險, 所以罵破儒林, 亦可笑也.”

운자를 모두 ‘中’ 한 글자로 맞추어 지은 것이 눈이 띈다. 그만큼 中을 강조한 시이다. 첫 구에서 밝히고 있듯 心中은 곧 天性에 다름 아니다. 일상의 모든 도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다른 시에서 “대도가 경전 속에 밝게 밝혀져 있으니, 나의 성선 궁구하는 길 다른 곳엔 없다네.”<sup>119)</sup>라고 한 데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天分을 지킨다’<sup>120)</sup>는 말도 이에 다름 아니다. 다만 천성을 찾아 닦아나가는 수양의 도구로서 독서 즉 경전공부를 강조한다.

경와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지성을 天真과 純眞으로 표현한다. 性を 眞으로 귀결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경와의 한시에 참된 공부[眞工, 眞業]라는 말이 빈출하는데 그것은 본성의 천진함과 순진함을 함양하는 공부로서 수양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카들에게 학문을 권한 和韻詩를 소개한다.

다행이 이 떳떳한 성품 부여해 사람 되니	幸茲彝性賦爲人
호연함 얻어서 나의 참됨 수양해야 한다네	要得浩然養我眞(其一)
六合의 사이에서 억만 사람들 중에	六合之間萬億人
고금에 천진함을 기른 이 몇이나 될까	古今幾得養天真(其二)
천지에 성품이 귀한 사람으로 참여하니	參得兩間性貴人
그 애당초 모든 선이 절로 천진하다네	厥初萬善自天真(其三)
천지가 화생하여 사람에게 본성을 부여하니	天地化生賦性人
사람 사람마다 이 순진함을 받아 얻었네	夫夫受得此純眞(其四)

282.<用河西先生韻詠自勉又戒子姪>【四首 乙三念五】121)

모두 4편의 칠언절구인데 기구와 승구만을 여기에 소개하였다. 경와가 인성론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성선설적 입장에서 나에게 천진하고 순진한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닦아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신의 둘째 아들(栽周)에게 준 시에서도 “나의 덕성을 높이면 참다운 공부가 크다”<sup>122)</sup>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경전을 통한 수양 공부가 경와의 교육관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다.

### 3) 敬과 誠과 勤

경와가 子姪과 학도들에게 修己를 통해 저마다 본성을 회복하는 대업달성을 권면한 것은 학문의 본질을 논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기의 과정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경와가 일생동안 삶의 지표로 삼아왔던 敬사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수양론에서 敬과 誠은 매우 중요하다. 주자는 敬을 ‘主一無

118) 『敬窩私稿』上, 卷1, p.53

119) 『敬窩私稿』上, 卷1, p.57. 115.<詠贈金奉斗> 大道明明經子裡, 究吾性善路無他.

120) 『敬窩私稿』上, 卷1, p.56. 107.<感懷> 心法最要敬且嚴, 修身以道德全兼. 守來天分知余樂, 毀譽徒增處世尖.

121) 『敬窩私稿』上, 卷1, p.94

122) 『敬窩私稿』上, 卷1, p.91. 270.<詠示次兒周> 尊吾德性眞工大.

適<sup>123)</sup> 이라 하고, 誠을 ‘眞實無妄<sup>124)</sup>이라 풀이하였다. 경와는 특히 敬을 강조하였다. 도학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할 때 우선 도에 뜻을 두어야 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敬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경와의 시문에 유독 自戒에 관한 글이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나아가 戒慎恐懼와 慎獨 그리고 『대학』 팔조목에서 誠意와 正心 등도 敬으로 논할 수 있다. 다음 소개하는 시는 도학을 닦으면서 敬과 義로 자신을 단속해야 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도에 뜻 둔 마음들이 유독 여기 있거니와	志道心心獨在斯
잠시잠간 사이라도 잡념을 생각하지 마라	分毫間念莫容思
의외방외하면 도의가 편안해지리니	義以方外安道義
경 공부 이처럼 붙잡아야 도를 보리라	可見敬工若此持 44.<敬義持己> <sup>125)</sup>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과 행동을 경계하고 단속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敬과 義이다. 『주역』과 『논어』 朱註에 보이는 “敬으로 마음을 끈게 하고 義로 행동을 방정하게 한다.”<sup>126)</sup>는 내용을 차용하였듯, 뜻을 세우고 경과 의로써 자신을 단속하며 수양해나가면 마침내 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힘써 경을 행하고 인을 어기지 말라.”<sup>127)</sup>고 당부한 것처럼 敬은 일상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며 샅된 마음과 행동을 일체 용납하지 않는 경건함이다.

경와는 修己를 통한 復性의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생활태도로 敬을 중시하였다. 경을 바탕으로 삼아야 성실하고[誠] 삼가고[謹] 부지런한[勤] 규범적 생활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경은 모든 생활의 근본적 토대이다. 이에 관련한 시를 몇 수 소개한다.

그대에게 묻노니 혹시 성공하는 법을 아는가	問君倘識成功法
오직 한결같은 성실과 근면이 곧 이 법이라네	惟一誠勤卽是法 189.<詠贈金判詰> <sup>128)</sup>
수신하여 다복을 구함은 오직 경해야만 하나니	修求多福惟能敬
무거운 수레라도 바른 땅 앞에서는 기울어짐 없다네	重轍無傾正地前 208.<詠贈柳奇洙兼示鄭海同> <sup>129)</sup>
독실한 배움 비록 어리석으나 반드시 절로 밝아지니	篤學雖愚必自明
그 공부 오로지 경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달렸다네	其工專在敬勤誠 242.<詠贈朴相浩> <sup>130)</sup>
뜻 방비는 매양 鐵限城 같이 하나니	防意每如鐵限城
경 공부 있는 곳에 도심이 밝아진다네	敬功存處道心明 276.<平旦偶吟> 【乙三小念】 <sup>131)</sup>

123) 『論語』 學而 5장 朱註, “敬者, 主一無適之謂.”  
 124) 『中庸』 16·20장 朱註, “誠者, 眞實無妄之謂.”  
 125) 『敬窩私稿』上에 빠져 보충한 시이다.  
 126) 『周易』 坤卦,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論語』 衛靈公 17장 朱註에도 보인다.  
 127) 『敬窩私稿』上, 卷1, p.51. 81.<詠贈鄭海同> 孜孜行敬或無違,  
 128) 『敬窩私稿』上, 卷1, p.74  
 129) 『敬窩私稿』上, 卷1, p.78  
 130) 『敬窩私稿』上, 卷1, p.86  
 131) 『敬窩私稿』上, 卷1, p.93

이상에서 경와는 자신을 수양하는 과정에서 경을 그 중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몸을 지키는 큰 근본은 경으로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다.”<sup>132)</sup>고 역설한 것처럼, 敬은 경와가 일생동안 삶의 정표로 견지해온 신념이다. 그 신념을 자신은 물론 학도들에게도 늘 강조하며 권면하였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는 굳은 신념이 절실했을 것이다. 경와의 시문에서 유독 敬자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음의 시는 立志로부터 復性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으로 일관되어야 함을 나타내주는 시이다.

사문을 책임질 자 누구일까 묻고서	擔責斯文問是誰
내 마땅히 배움에 뜻 두고 성인과 함께 하라	我當志學聖同隨
규구준승은 반드시 전철을 따르는 법	規矩須必由前轍
모든 선이 성에 맞으면 도가 어그러지지 않으리	萬善性中道不虧 262.<詠示諸生誓共勉學> <sup>133)</sup>
부지런히 독서하면 총명함이 이로부터 열리고	勤讀聰明自此開
일과의 공부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라	課工莫使少遲回
진실로 진업을 구하려면 몸소 닦는 곳에서	苟求真業躬修處
성인의 경 공부 날마다 실천하면 본성을 회복하리	聖敬日蹄復性來 293.<詠勗姪在喆>其-- <sup>134)</sup>

신구가 교체하는 시대적 격변기에 경와는 守舊의 입장에 서서 사문을 지켜내는 일이 유학자로서 마땅한 사명이라 여겼다. 차후 사문을 책임질 자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망설임이 없어야 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개인의 수양은 물론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敬을 통한 점진적 修己로써 마침내 본성을 회복하여 저마다 혼탁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랐던 것이다.

#### IV. 결 론

경와는 일제강점기 지식인 중 한 사람이었다. 한편으로는 이후 현대까지 유학의 이념과 가치를 옹골케 지키며 학문을 닦은 도학자였다. 시대적 전환기에 경와의 우환의식은 도학과 강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호학파의 학맥을 계승한 한말의 거유 간재 전우의 재전제자로서 도학을 계승하고, 유학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향의 금산서사와 전주향교 등지에서 꾸준히 강학 활동을 하였다.

한시를 통해 본 경와의 우환의식은 첫째 도통의 단절에 있었다. 도맥의 계승을 위해 몸소 간재의 제자인 금재 최병심을 찾아 기호학맥인 간재학파에 귀결하였다. 이는 단순히 금재를 사사한다는 차

132) 『敬窩私稿』上, 卷1, p.95, 286.<詠贈長子武兼示鄭海同>【乙扌三】守身大本敬爲先.

133) 『敬窩私稿』上, 卷1, p.90

134) 『敬窩私稿』上, 卷1, p.97

원을 넘어 도맥을 계승하려는 의지의 실천이었다. 말년에 간재의 성사심제설을 性天心地로 규정함으로써 도학의 계승은 성취되었다.

둘째 우환의식은 유가전통의 쇠락이었다. 유학중자를 길러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일생동안 강학 활동을 하며 후학들을 권면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교육관은 修己였다. 이에 권학시는 성선설에 바탕을 두고 저마다 본연지성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순선한 본성을 닦아나가는 것이야말로 위기지학이며 진정한 학문이라 믿었다. 편벽된 기질의 변화를 추구하되 외적인 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순선한 본성을 닦아 저마다 대업을 이룬다는 수양론적 입장이었다. 이는 復其性の 성리학적 사유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문자세는 당시 유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태도였다. 수양에서는 敬과 誠과 謹과 勤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敬을 학문과 생활의 종주로 삼았다. 敬 사상은 간재에서 금재로, 다시 금재에서 경와로 이어지는 또 다른 철학적 명제이다.

결론적으로 경와에게서 도학과 강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모두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며, 그것은 스스로 친진하고 순진한 본연지성을 닦아나가는 수양이었다. 급변하는 현실에서 시류나 영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순선한 본성을 따르려 하였다. 외향적 학문을 지양하고 철저하게 위기지학으로 일관했던 그의 삶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새삼 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든다.



# 경와 엄명섭 삶과 활동들에 대한 고찰

김기림(조선대학교)

# 경와 엄명섭 삶과 활동들에 대한 고찰

김 기 림 (조선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 생애 개괄 및 저술들
3. 향촌에서의 활동
  - 1) 교육 활동
  - 2) 爲師 및 爲友 활동
4.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유가에서 강조하는 말이다. 사적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에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단계성’을 보여준다. 이는 한 국가의 역사나 문화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 역사나 문화사는 한국 영토에 있는 지역-지방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며, 지역-지방 역사(문화)는 그 지역에 속하거나 관련 있는 개인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 개인-지역-국가-세계의 단계성을 밟아 한국 역사, 세계 역사가 서술될 수 있는 것이다.

호남은 한국의 한 영역이다. 호남의 역사 문화는 호남에 있는 개인들의 역사, 인식, 문화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서술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이라는 더 넓고 높은 층위에서 고찰될 때 개인의 역사, 지역의 역사 및 문화가 지닌 의의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지역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는 이처럼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활동한 각각 개인에 대한 연구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 경와 엄명섭(敬窩 嚴命涉)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이다. 경와는 일제 강점기가 막 시작되던 때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의 강압 상황, 해반(解絆),<sup>135)</sup> 전쟁, 외국 문화 유입

135) 이는 경와가 자신이 저술한 모든 글에서 썼던 말이다. 경와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解絆과 解放의 발음은 거의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해반을 줄곧 쓴 것으로 보아 그가 일제강점기를 ‘묶여서 맘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 보편화로 인해 한국이 변화해가는 상황 등을 모두 겪었다. 그의 삶의 배경은 전통적 유교 문화 규범이 존속하고, 그것이 외국 문화 및 사상과 충돌하고 착종, 혼용되면서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회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교 문화를 소유하고 있던 그의 삶과 활동을 살피는 일은 똑같은 시기 및 상황에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의 궤적 내지 그 성향, 의의를 드러내는 데에 밀바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경와 개인의 삶-활동을 살피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2. 생애 개괄 및 저술

경와 엄명섭은 1906년 (광무 10년) 3월 10일 전남 옥과면(立面 金山里)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엄일령(嚴日令), 아버지는 엄주용(嚴鑄容), 어머니는 충주 지씨로 지용재(池龍載) 딸이다. 형과 함께 글을 읽으며 자랐다. 10세에 조한승(曹漢承)에게 가 『사략』 『춘추』를 읽었고, 12세부터 3년 간 소송진영봉(小松 晉瑩奉)으로부터 『통감』 등을 배웠다. 18세부터 죽사 장병회(竹師 張柄晦)를 사사했다. 2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후 이 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듯 ‘마음을 수습할 줄 모르겠고 욕구도 제어하기 힘들다. 다만 외수(外守)만 할 뿐이어서 이 때문에 아프기까지 하다.’고 고백하였다.<sup>136)</sup> 아버지 상을 마친 후 30세(1935년) 가족을 데리고 황해도까지 올라가 37세(1942년)에까지 타향살이를 했다. 그 사이 장연, 웅진, 해주 등으로 옮겨 다니면 살았고, 1938년 부모님 이장할 때와 1941년 죽사 장병회 부음을 받고 와서 곡할 때에 잠깐 다녀갔었다. 경와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형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은 ‘집안이 기울어지고 의지할 이가 한 사람도 없으며, 동생이 객지 생활하는 것이 슬프다.’라는 내용을 담아 여러 번 편지를 써 보냈고 경와는 이를 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1946년에 전주에 있던 금재 최병심의 문하에 들어갔고 고향 金山과 전주를 오가며 10여 년간 금재를 사사했고 그의 사후 박인규와 함께 금재 문집 印刊일을 맡아 했다. 이 기간 동안 전주에 가서 금재에게 배웠고, 고향에서는 교학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다 1976년 2월 전주로 왔고, 전주 향교 명륜당에서 교학활동을 했다. 경와가 전주로 온 것은 박인규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기에 ‘구강재에 갔다. 성당이 명륜당에 와서 머무르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이날부터 항상 명륜당에 거하였다.’라고 썼다. 구강재는 성당 박인규가 정읍에서 전주로 옮겨올 때 지었던 건물로 그는 1976년 10월 여기서 생을 마쳤다. 박인규는 금재의 제자로 정읍과 전주를 오가며 배우다가 금재 사후 전주로 옮겨와 학문 연구와 강학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그 때 박인규는 경와에게 전주향교로 와서 가르치는 일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글을 정리하는 작업을 함께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와가 전주

136) <舜山日記餘錄> 『舜山日記』. 不知心術收拾 未能制慾於一思一意之願 而但務外守 仍獲身疾.

에 와서 먼저 한 일을 박인규의 私稿를 베끼는 일이었다.

경와는 1976년부터 1986년 5월 전주 향교에서 완전히 나갈 때까지 거의 10여 년간 전주향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1984년 8월경에 향교 측에서 경와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고<sup>137)</sup> 5월에야 명륜당에 있던 짐을 모두 빼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송천동에 마련한 집으로 와 ‘尤可齋’를<sup>138)</sup> 열고 후학을 가르쳤다.

전주에 있는 동안 경와는 학생을 가르치며 한편으로는 스승과 친구의 문집을 정리, 간행하는 일을 하였다. 1976년 박인규 사후 그 동안 베끼며 정리했던 글들을 모아 『성당사고』를 간행했고, 박인규의 부탁으로 그의 스승이었던 우당 김승용(尤堂 金承容)의 유문을 수집 정리하여 1977년 『우당문집 습유』를 펴냈다.<sup>139)</sup> 이를 위해 김승용의 아들인 정와 김대중을 만나러 여러 번 서울을 다녀왔고, 우당의 글이 있는 1978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스승 금재 최병심 문집의 부록 및 습유 편찬, 간행일을 주도하여 1991년에서야 인쇄를 마쳤다. 1980년에 친하게 지냈던 입와 김중연(立窩 金鍾淵) 사후 그의 아들 김직수(金直洙)의 부탁으로 『입와집』 편차일을 맡아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1976년부터 1990년까지 경와는 스승과 친구를 위한 문집 출간을 선뜻하면서 동문애를 다지기도 했다. 이 외에 경와는 1985년 보광서원 원장을 맡았고, 유팽로의 문집 출간을 주선하여 그의 충절을 알리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말년에는 건강상 혼자 있기 어려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배우고자 찾아 온 제자들을 거절하지 않고 가르쳤다. 그리고 2003년 6월 17일에 고향에서 생애를 마쳤다.

한편 경와는 경전과 여러 책을 읽으면서 현토(懸吐)하는 일을 했다. 그는 대체로 간재가 달아놓은 토를 기반으로 다시 베끼면서 토를 달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언해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리하여 논어 현토(1976), 주역총목과 정의(1980) 근사록(1984) 논어, 맹자(1984) 등에 토를 달아 쓰는 일을 했던 것이다. 그가 현토를 한 것은 후학들의 공부를 돕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문에 토를 달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만의 고유한 독법이다. 토를 달아서 단락과 어기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문맥이 끊어지는 곳에 토를 사용한 것이다.<sup>140)</sup> 즉 토를 다는 일은 경전을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학습 초보자에게 매우 편리한 것이었다. 실제 경와는 1984년 10월 기록에 ‘토를 다는 것은 대개 뒷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해서이다.’<sup>141)</sup> 라고 하여 학습 초보자들의 경전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사서 및 여러 독서물에 대한 언해도 하여 『사서삼경집주언해』 『동몽독본언해』 『명심보감언해』 『소학언해』 『효경언해』 등이 있으며 자신이 책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것을 기록한 『독서기의』가 있다.

137) 이 때 향교 전교였던 박찬호가 상무인 오준섭을 시켜 경와에게 향교에서 퇴거하라는 고지서를 들고 왔다.

138) 송천동에 있었으므로 송천서사 또는 우가재라고도 한다. 우가재는 최갑렬(崔甲烈)이 지어주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늙어도 더욱 더 배우기를 좋아하고 힘썼다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139) 1976년 10월 1일 일기에 ‘오후에 구강재에 도착, 성당이 부탁한 김우당문집습유 수집하는 일로 그 곳에서 잤다.’고 했다. 이 때 박인규는 이미 건강이 악화되었고 10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박인규는 우당문집습유를 편찬, 간행하려고 그 동안 준비하였고, 그 마무리를 경와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140) 송병렬, <현토 교육의 유용성과 토의 문법적 성격>, 『한문교육연구』 제13호, 1999, 136쪽.

141) 『경와일기』 1984년 10월 4일. “論孟集吐以己見定之懸之 自此日始着力 蓋欲示來裔故也.” 경와는 경전 및 선현의 글에 토를 달아 이를 배우는 이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 그의 사후 제자들과 후손들이 글을 정리하여 영인한 『경와사고』가 있다. 또한 그는 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순산일기』는 1946년 8월 16일부터 1959년 10월 21일까지 기록하고, 그 뒤에 고유문 3편과 <순산일기 여록 舜山日記 餘錄>이 붙었다. 『경와일기』는 전체 2권이며 1권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1976년 1월 29일부터 시작하여 1997년 1월 22일까지의 기록으로 2 나뉘어져 있다. 『순산일기』와 『경와일기』 사이의 시기인 1960년부터 1975년까지의 기록은 비어 있다. 1권 중 앞의 일기 표지 내용을 보면 『일기』라고 했고 그 옆에 ‘자병진정월이십구일 지무오십이월이십구일 우자기미원단이강自丙辰正月二十九日 至戊午十二月二十九日 又自己未元旦以降’이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 기록은 1976년 1월 29일부터 1978년 12월 29일까지이다. 1권 중 두 번째권 표지에는 『일기』라고 쓴 옆에 ‘기미원단이래己未元旦以來’라고 하였는데 1979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29일까지 일기이다. 2권 표지를 보면 『일기 2日記二』라고 하였고 그 옆에 ‘자기미원조이항自己未元朝以降’이라고 쓰여 있어 1989년 1월 1일부터 1997년 1월 22일까지 일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권 첫머리에 ‘우가재일기尤可齋日記’라고 쓰여 있다.

### 3. 향촌에서의 활동

#### 1) 교육(教育) 활동

경와는 10세부터 고향 및 인근의 선생님으로부터 글을 읽으면서 배웠다. 그의 아버지는 집이 가난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평생 한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혼 후 자식들 교육을 독실히 하기로 아내와 약속했다. 경와 형제는 조한승, 진영봉 등을 사사했고 18세에 장병희에게 3년동안 배웠다. 한편으로 경와는 비교적 이른 나이라고 할 수 있는 21세부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우선 금산의 서숙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여 30세에 고향을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했다. 이후 37세까지 황해도 지역에서 객지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가르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7세 귀향했을 때 인근의 학부형들이 요청하여 시습재(時習齋)에서 학생을 받아 가르쳤다. 이로써 보면, 경와는 192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유교 경전 및 한문으로 된 전적 곧 경사(經史)를 가르친 셈이다.

이 때에는 일제강점기로 당시 향촌에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일본은 교육을 통해 조선을 식민지화하고자 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서당개량운동’ 전개했다. 『서당규칙(書堂規則)』을 정하여 서당 교육을 탄압하는 동시에 일어 보급을 위한 것으로 변화시켰고 서당뿐 아니라 사숙도 감시 대상으로 삼았으며 ‘현대교육’에 부응하지 못한 한문 서당은 철폐해야한다고까지 했다.<sup>142)</sup> 이른 바 개량서당이 아니면 모두 철폐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경와의 학숙도 예외는 아

142) 김형목, <일제강점 초기 개량서당의 기능과 성격>, 『사학연구』, 78, 2005.

니었던 듯하다. 1943년 상황에 대해 ‘일정 때 숙(塾-글방)을 금지하는 것이 매우 심했고 드디어 호출당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때 마침 소 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고발한 일 때문에 글방 일을 좀 늦추는 바람에 화를 면했다.’<sup>143)</sup>고 했다. 그 만큼 당시 학숙을 열어 경전을 읽게 하거나 전통적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적극적이지는 않으나 일본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전통적 방식의 교학 활동을 그만두지 않았기에 해방 후에도 지속했다. 1946년에는 전주에 있는 금재 최병심의 문하에 들어가 10여 년간 전주와 고향을 오가며 배움과 가르침을 병행하였다. 이때부터 경와는 자신에게 배우러 온 제자들 이름을 본격적으로 기록하였다. 가장 먼저 보이는 기록은 1946년 여름에 쓴 것이다.

여름, 숙사에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시습재로 옮겼다. 이 때 심윤식, 조성환, 장은식 등이 와서 글을 읽었다.<sup>144)</sup>

이후 ‘김한석이 아들 김재주를 데리고 식량까지 갖고 와 글 가르쳐 주기를 요청했다.’ ‘권노인이 아들 삼봉이를 데리고 와 교육을 부탁했다.’ ‘이성운이 손자 이현춘을 데리고 왔다.’<sup>145)</sup>등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사는 그의 일기-순산일기, 경과일기-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문집인 『경와사고』 맨 끝에 <輔仁錄>이라는 기록에도 1946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60여 년에 걸쳐 시기순으로 기록하였다.<sup>146)</sup>

고향에서 가르칠 때에 경와는 글 읽기뿐만 아니라 실제 예법을 행하는 것도 가르친 듯하다. 1948년 3월 15일 기록에 ‘제생들과 순산평에서 상읍례를 연습했다. 조성환과 조기욱 등을 동서반장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상읍례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일종의 인사법이다. 이는 지극히 예의를 차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인사이다. 경과가 학생들을 데리고 상읍례를 연습했던 것을 보면 그가 일상의 실천도 매우 중시하는 교육관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경와의 교학 활동이 나름대로 가장 왕성했던 때는 전주 향교 명륜당에서 가르칠 때로서 1970년 후반부터 1980년 중반까지이다. 전주 구강재에 있던 誠堂 朴仁圭가 요청하여 경와는 1976년 2월에 전주로 갔고 그 이후 명륜당에 머물며 1986년 경까지 거의 10여 년 넘게 학생을 가르쳤다. 이 시기 기록-일기-에는 명륜당에 와서 배웠던 제자들 이름이 3,4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등장하며 학생들이 읽었던 글 또는 책 제목까지 기록하는 꼼꼼함이 드러난다.

이남안이 주역 24괘를 읽었다.<sup>147)</sup>

양복규가 고문진보 5권 읽는 것을 마쳤다.<sup>148)</sup>

143) <舜山日記餘錄>, 『舜山日記』. 三十八歲 癸未 時日政禁塾甚急 至被呼出 適有買牛市人失金告發事 而塾事推緩 勉刑以禍.

144) <舜山日記餘錄>, 『舜山日記』. 夏 因塾舍難容 移于時習齋 時沈潤植 曹星煥 張股植 等來讀

145) 『순산일기』, 1948년 1월 25일, 1949년 5월 7일, 1950년 3월 24일.

146) <보인록>에서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은 梁海柱이며 그 다음이 沈潤植이다.

147) 『경와일기』 1978년 4월 19일.

설민호가 와서 통감 제11편을 읽었다.<sup>149)</sup>

김형율이 천자문을 읽었다.<sup>150)</sup>

전성기가 객지에서 여러 풍상을 겪은 후 와서 대학 읽기를 청하였다.<sup>151)</sup>

<보인록>에 기록된 학생의 수는 거의 990여 명인데 전주 향교 및 우가재에서 가르칠 때의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때 경와가 가르친 내용들은 『소학』 『시전』 을 비롯한 경서 및 史書부터 『고문진보』와 같은 문헌서, 『천자문』 같은 한자 기초서까지 전통적 한문 교육에서 쓰던 것들이었다. 이는 그가 한문 교육에 있어서 어느 한 범주만을 고집하지 않고 기초부터 경전까지 아우르는 학습 내용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문으로 된 전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한편으로는 경전을 읽고 이해하여 그것을 학문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던 그의 교육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sup>152)</sup>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전통 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고전 번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번역 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sup>153)</sup> 이후에 한문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이에 한문 교육 현장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즉 고전번역을 위해서는 한문을 능숙하게 읽고 번역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이 시대적 필요이자 요구였던 것이다. 전주 향교에서 수행한 경와의 교학 활동은 이러한 시대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주향교의 한문교수와 그의 교학 활동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보도되기도 했고, 경와도 이를 기록하고 있다.

전주방송국에서 本局으로 직접 와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했다. 서울 제일방송국에서 전주향교 한문 교수 상황을 널리 알리고 물어 보았기 때문이었다.<sup>154)</sup>

한국방송사에서 전주향교 한문강습 규범을 선전하려고 와서 촬영, 녹음했는데 저녁 늦게 끝났다.<sup>155)</sup>

이처럼 경와는 1920년대 20대 초반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여 2000년까지 거의 80여 년 세월을 한문 교수에 바쳤다. 젊은 시절-일제 강점기- 한문 교학은 기존의 경서 및 독서물을 통해 전통적 학문을 계승하기도 하였으나, 전래의 교수 방식과 교재를 고수했다는 점에서 일제의 식민화 교육에 반기를 들었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또한 장·노년 시기의 한문 교학은 우리의 옛 문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글로 번역함으로써 고전을 현대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148) 『경와일기』 1978년 5월 2일.

149) 『경와일기』 1979년 1월 14일.

150) 『경와일기』 1980년 3월 27일.

151) 『경와일기』 1983년 6월 2일.

152) 실제 당시 여러 대학의 교수자들이 그에게 와서 묻기도 했다.

153) 이규필에 의하면 당시는 냉정시대로서 북한의 고전번역이 자극제가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고전번역 촉진제가 되었다고 하였다.(이규필, <근현대 고전번역에 대한 일고찰>, 『고전번역연구』2, 한국고전번역학회, 2011.)

154) 『경와일기』 1982년 12월 30일.

155) 『경와일기』 1983년 1월 6일. 이 외에도 1981년에도 한국방송공사에서도 한문구식 교학법을 촬영해갔던 듯하다. 1981년 10월 10일 기록에 이 일로 인해 한국방송공사에서 사례금 2만원을 보내왔다는 내용이 있다.

## 2) 위사 활동(爲師 活動)

경와는 소송 진영봉, 죽사 장병희, 금재 최병심을 사사했다. 경와 학문의 성향을 일관한 것은 ‘간재 학문’이다.<sup>156)</sup> 그가 간재를 접하게 된 것은 죽사 장병희를 사사한 때부터인 듯하다. 죽사를 찾아 갔을 때의 상황에 대해 ‘당시 선생은 간옹에 대해 3년 심상(心喪)을 하고 계셨다.’<sup>157)</sup> 라고 했고, 장병희가 간재 문집 진주본과 신도본을 상호 대조하기 위해 두 가지 모두 갖고 있을 때 간재집을 보았다.<sup>158)</sup> 이를 통해 간재를 사숙하였고, 간재 학설의 중요한 내용인 ‘性師心弟說’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sup>159)</sup> 그리고 본격적으로 간재를 사숙하게 된 것은 1946년 금재 최병심 문하에 들어간 이후부터였다. 금재의 제자로 입문한 직후부터 간재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통해 간재의 학설을 이해, 수용했던 것이다.<sup>160)</sup> 무엇보다 그가 금재 문하에 든 것은 주위 권유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간재 제자들은 많았지만 자신만의 기준으로 스승을 택하였다.

병술년(1946) 8월 16일, 처음으로 금재 최병심 선생을 옥류동에서 찾아 뵈고 가르침을 청하니 선생께서 허락하셨다. 이에 앞서 간재 선생의 문집이 일본인의 인가를 얻어 晉陽(지금의 진주)에서 출간되었다. 최 선생께서는 인가의 무고함을 배척하고 팔도의 동지들과 문중에 알려 화이(華夷)의 변별을 매우 엄격히 하였으나, 당시 대부분의 영남 사람들은 의견이 달랐다. 내가 이제 와서 처음으로 선생을 뵈었는데 이쪽의 의리가 명확하고 또 컸다. 우리 도통의 전함이 여기에 끊어졌는데, 夷와 夏를 엄격히 방비해야 한다는 節目이 어떻게 마땅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또 나의 공부가 성취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가 배움을 청하였다.<sup>161)</sup>

그가 스승을 택한 기준은 ‘화이변별에 있어서 금재 쪽의 의리가 명확하고 컸기’ 때문이었다. 금재는 ‘거짓말과 사악한 무력을 쓰는 것은 夷의 취향’이라고 하면서 도의 및 예의로써 화와 이를 구분하고자 했고,<sup>162)</sup> 이런 점에서 일본은 분명 夷였다. 경와는 그런 夷에게 검열당하고 인가받은 후 간재의 문집을 간행한 오진영 등을 비판했던 금재를 ‘화이변별’을 분명하게 하는 학자로서 존경했던 것이다. 경와는 스승 선택에 신중했고 그 만큼 스승에 대한 존중심은 대단했다. 일찍이 黃從周가 편지에서 ‘간재良齋는 조사祖師이고, 죽사竹師는 부사父師이며 최사崔師는 계부사繼父師’라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경와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사제는 처음에 구봉에게 배웠다가 또 율옹을 사사했지만 문묘에 들었으니 이는 만세의 법이 되기에 족하지 않습니까? 또 가까운 때로 말할자면 고산은 처음에 강재에게 배웠고 또 매산을 사사했습니다. 이 또한 백세의 법이 될만하지 않습

156) 경와는 간재를 직접 사사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존중은 대단했다. 1947년 1월 간재선생 진영을 私室로 옮겼고 이후 1957년까지 매년 새해 초에 ‘간재 진영 봉심 의례’를 거행했다. 이 진영은 1937년 죽사 장병희가 경와에게 준 것이었다.

157) <舜山日記餘錄>, 『舜山日記』, 時先生服良翁心喪三年.

158) 21세 때 장병희가 두 본을 대조하기 위해 경와를 시켜 사천에 살던 金楨鏞에게 가서 진주본을 사 갖고 오도록 했다. 그러나 장병희는 대조 작업을 마치지 못했고 뒷일을 경와에게 부탁하였다. 장병희 사후 경와는 배산에 가서 간재의 문집을 가져왔다.

159) 이은혁, <경와 엄명섭의 학문과 간재사상의 이해>, 『한문고전연구』33,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160) 이은혁, 앞의 논문.

161) 『舜山日記』, “丙戌八月十六日, 始拜欽齋崔先生于玉流洞而請教, 先生許之. 先是, 良翁文集, 至得奴認而印于晉陽也. 先生斥其認誣而發, 敬告八域同志諸公門中, 甚嚴華夷之辨而時多右嶺者, 議有異同. 某到于今, 始見生, 此義明確且大, 蓋吾道之傳失此, 夷夏嚴防一節, 何以得宗? 且某工夫無所成就, 故自往請業.”

162) 魯平奎, <欽齋崔秉心の經世思想>, 『간재학논총』, 11, 2011, 173-203



니까? 죽시는 처음에 농산에게 배웠고 또 간옹을 사사했습니다. 제가 금옹을 사사한 것이 불가할 것이 있습니까? 집사께서 말한 대로라면 율옹도 계부사를 면치 못하고, 매산 또한 계부사를 면치 못하며, 간옹도 계부사를 면치 못합니다. 계부사라는 세 글자는 악명입니다.<sup>163)</sup>

계부사는 嫡傳 의미가 적고 적통 스승으로서의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 경와는 자신이 사사했던 사람 가운데 금재를 ‘계부사’로 지칭한 것이 불만이었고 그 만큼 금재 제자로서 자긍심이 대단했다. 여기에는 금재의 학통에 대한 자긍심이 깔려 있었다.

당시에 간재의 도통이 이미 정자주자·율곡·우암을 이어 접했고, 천하의 예가 華嶋(계화도)에 있었습니다. 良聖이 돌아가신 뒤에 도학의 嫡傳이 우리 선생님께 돌아왔으니 조선의 예의가 옥류동에 있습니다. 천하의 예의가 조선에 모여 있고, 조선의 예의가 선생에게 모여 있으니, 선생께서는 천하에 그 책임지고 있는 도를 마땅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sup>164)</sup>

경와는 금재가 간재의 적통제자이며 간재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스승에게 은근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와는 자신의 스승 및 학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스승 특히 금재를 위한 사업이나 衛護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 섰다.

이러한 爲師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금재 문집 간행 및 사우 건립 주도, 금재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앞장서서 해명한 것이다.

우선 금재의 문집 간행에 경와는 금재가 살아 있을 때부터 그 일에 참여했다. 금재는 간재 문집 간행이 정밀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농암집은 매우 정밀하게 하여 간행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집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였다. 그러면서 생전에 자신의 글을 정리했다. 이 때 경와는 금재의 私稿를 베끼고 목록을 의정하는 일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1957년 금재 최병심이 구강재에서 별세한 후 제자들이 모여 문집 간행을 논의하면서 문집 간행을 위한 계안까지 작성했었다. 그러나 문집 간행 첫 단계부터 제자들 사이에 논의가 분분했다. 문집 간행을 알리기 위한 刊稿通文에 ‘節義巨室’이란 문구가 있었는데<sup>165)</sup> 방진房珍이 이 네 글자를 빼자고 한 데서 발단이 되었다. 그것은 일찍이 최병심이 ‘친일했던 이원보’를 보호해준 일로 인해 세간에서 ‘護逆’했다는 평판이 돌았고, 방진은 이 ‘外論’을 이유로 삼아 ‘절의’란 글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경와는 ‘조헌이 비록 이발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발의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잡혀 갈 때 털옷을 입혀 주었던’일에 빗대며 ‘이것이 의리를 해친 것이냐.’고 반론했다. 또 ‘外論’이란 영남의 오진영 쪽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절대 빼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결국 이 글자는 처음 그대로 남았다. 이는 단 네 글자이

163) <答黃從周>沙溪初學九峰 又師事栗翁 然陸于聖廡 此不足爲萬世之法歟 且以近世而言之鼓山初學剛齋又師事梅山 此亦不足爲百世之法歟 竹師初學農山 又師事良翁然則 余之師事欽翁有何不可乎 若如執事之言 則栗翁未免繼父師 梅山亦未免繼父師 良翁亦未免繼父師 繼父師三字 惡名也

164) 『敬窩私稿』上 권2, <上欽齋先生 戊子>, “當時良翁道統既接程·朱·栗·尤, 則天下之禮, 在於華嶋. 良聖沒後, 道學嫡傳, 歸吾先生, 則朝鮮之禮義, 在於玉流洞矣. 天下之禮義, 聚在朝鮮, 朝鮮之禮義, 聚在先生, 則先生之於天下也. 其任責之道, 爲當如何哉?”

165) 이 통고문은 박인규가 작성했다. 이에 해당하는 문구를 보면 ‘我欽齋先生 良翁嫡傳 節義巨實 學問宗匠 雖片言隻字 無非發明性理之奧 春秋之義’(『誠堂私稿』권2, 잡저 <通告文>).

지만 금재 평생에 대한 평가라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문집 간행 의의와도 결부된다. 즉 금재 문집 간행은 금재의 절의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가치가 있는 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문집 간행의 정당성, 타당성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재 문집 간행에 또 다른 문제는 刊所의 장소였다. 나진선과 송렬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新都에 인쇄 부탁을 했고 경와를 비롯하여 박인규, 방관 등은 師稿를 밖으로 내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8년 5월 11일 기록에 ‘나진선과 송렬이 신도에 인쇄를 부탁했다.’고 했고 5월 18일에는 박인규와 함께 남하장을 찾아가 논의하여, 24일에 남하장이 옥류동에 간소를 정하자고 말하여 일단 그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신도와의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었는데 28일 송렬이 와 ‘신도에서 간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 때 박인규가 극력 저지했고, 송렬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떠났다. 이 때 최규만은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던 듯하다. 경와의 기록에 의하면 ‘신도 사람들이 간행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설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스승의 문집을 밖으로 내보내 세간에 논란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던 듯하다. 금재는 진주에서 간행된 간재 문집에 대해 항상 우려와 불만을 토로했었다. 일본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간재가 손수 정한 手定本대로 간행하지 못하고 산삭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간재의 원고를 ‘밖으로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금재의 경우 영남쪽에서 ‘절의’ 문제로 이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스승의 글을 밖으로 멀리 보내는 일이 내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와는 ‘잠이 안 온다.’고 할 정도로 심하게 걱정했다. 결국 옥류동에 간소를 마련하기로 결정되었고,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사히 금재의 문집을 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집 간행에 있어서 스승의 명예를 위해 노력한 경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후 1976년 금재 문집 부록을 박인규와 함께 정리했는데 중간에 박인규가 세상을 뜨는 바람에 「부록」 편찬 및 간행 일도 도맡아 했다. 그리하여 입와 김종연과 상의하였고 부록에 제문, 만시 등만을 넣어 1978년에 「부록」을 냈다.<sup>166)</sup> 「부록」을 낸 직후 습유 간행을 시도하여 통문을 냈고 선생의 글을 모아 다시 베껴 쓰고 편차를 정리하였다. 1978년 3월 9일에 습유를 모아 편집하는 일에 대해 논의 할 때 경와는 ‘자신이 모두 혼자서 감당하겠다.’고 스스로 나서서 습유 간행 일을 진행하였다. 입와 김종연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했고, 翠軒 李相寧과 함께 습유를 정리하였다. 습유 간행은 경와가 일찍부터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금재 문집을 간행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순조로웠고, 금재 문하인들이 습유를 위한 의연금을 잘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은 문집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어 1991년 6월 2일에야 책을 받았다. 그 다음날 금재에게 고하는 祭를 지냈다.

유세차 신미 유월 계미 삭3일 을유에 문인 엄명섭 배성수는 선사 금재최선생께 고합니다. 저희들이 선사께서 남기신 글을 모아 편차를 정하여 습유와 부록을 이루어 3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전 학민문화사 홍재곤의 印所에 부탁하여 양장 한 권으로 만들어 100질 인쇄를 마쳤습니다.<sup>167)</sup>

166) 1978년 2월 11일 ‘금옹고부록 인쇄를 완료하여 책 150질이 왔고, 최규만이 사당에 술 올리고 고하였다.’고 했고, 1978년 3월 9일에 ‘옥류동에서 금옹집부록 나누어 주는 일과 습유편집회의를 했다.’고 했다.

이후 경와는 습유를 여러 사람에게 직접 가 나누어주었고, 자신을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곤 했다.

한편 경와는 금재를 위한 사우 건립도 직접 챙기고 주선하여 완공하였다. 사우 건립안에 대해 경와는 먼저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醉石 李殷衡이 사우 건립일에 몰두하는 경와를 보고 노고를 치하하자 경와는 ‘처음에 내가 주창한 것이 아니라서 스스로 수고롭다고 말하기가 뭣하다.’라고<sup>168)</sup> 대답했다. 다만 그 전에 具淵建과 잠깐 마주쳤을 때 구연건이 ‘선사 금용선생의 도학과 절의는 마땅히 사우를 세워도 좋다.’고 한 말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 사우 건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9년 2월 9일 이종택이 사우 세우는 의연금을 내겠다고 온 일, 2월 11일 최규만이 금재 영정각 건립을 계산해온 일, 2월 16일 배성수를 찾아서 영정각 건립을 논의 한 일, 4월 13일 영정각 건립을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 송렬을 찾아갔던 일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논의는 금재 문집 부록이 출간된 직후인 1979년 초부터 논의되었던 듯하다. 2월부터 8월경까지 사우 건립 여부 및 건립 시기에 관해 동문들과 논의하였고 1979년 9월 27일에 ‘선사영정각건립 통문’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1979년 10월 23일에 상량식을 거행했는데 이 때 취석 이은형, 강암 송성용 등이 참석하였다. 이렇게 금재 사우 건립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데는 크게 문제된 것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편이었다. 그러나 상량 이후 사우의 규모 및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체되었다. 당시 송렬이 사우 건립일을 맡아서 주선하곤 했는데 그는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우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였다.<sup>169)</sup> 그리고 1979년 12월 10일 옥류동에서 ‘선사 사우 건립 추진회의’를 열고 임원을 선출했다<sup>170)</sup> 경와는 지도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인 사우 건축 일을 관리했다. 그리하여 만아들 엄재무가 간간이 도와 건물 세우는 일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후 사우 규모에 대해 논의가 분분했다. 송렬은 官의 도움을 받아 규모를 확대하고자 했고, 김동순이 부회장을 맡게 되자 그도 관청의 협조를 받아 규모를 크게 하기로 결정했었지만 둘 다 쉽지 않았다. 게다가 사우 건립 자리에 있는 연당으로 인해 최씨 문중과 합의하지 못해 시일을 끝냈다. 이에 대해 경와는 ‘김동순이 관청 협조를 얻어 규모를 크게 하고자 했지만 관청을 믿기 어렵고 최씨 종씨들과 얽힌 연당의 일도 해결하기 쉽지 않아 사우 완성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규모를 줄여 내외 삼문을 세우지 말고 터 안 쪽으로 담을 쌓아 완성하고 봉안하는 방법이 낫겠다.’<sup>171)</sup>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1984년에야 다시 일을 시작하여 경와가 제안한 대로 규모를 줄여 일을 진행

167) 신미 6월 3일, 午前 立軒訪來相議 以酒果祝告 先師紙主而共拜之 祝文曰 維歲次辛未六月癸未朔三日乙酉 文人嚴命涉 裴聖洙 敢昭告于先師欽齋崔先生 伏以小子等 蒐輯先師遺文編成拾遺及附錄 合三冊 爰託大田學民文化社洪載坤印所 洋裝結冊一卷 印了百帙

168) 『경와일기』 1979년 11월 24일.

169) 『경와일기』 1979년 10월 24일

170) 1979년 12월 10일. 위원장-윤제술, 부위원장-양필영 황상규, 총무-최규식, 부총무-이상녕, 지도위원장-엄명섭, 지도위원- 송방섭, 방진홍, 박중호 등으로 정했다.

171) 1982년 10월 5일.

하였고 9월 26일에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금재 사위-옥동사-건립은 경와가 주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완공한 것은 경와였다. 규모 확대 여부, 관청의 도움 여부 등으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경와는 '규모 축소'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일이 진행되도록 했고, 그의 만아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얻어 사위를 완공하여 봉안의식까지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금재에 대한 경와의 존숭의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스승의 도가 안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다.

한편 그는 스승에 대한 세간의 의혹 특히 '韓田事'와 관련한 의혹을 잠재우는 데도 적극 나섰다. 1918년 일제는 옥류동 일대를 이른 바 '모범뽕밭만들기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탈하려고 했다. 금재는 항거하고 경찰서에 간히고 고난을 당하고 풀려났지만 결국 땅을 빼앗겼다. 후에 이원보李元輔가 도지사로서 왔는데 그 사정을 듣고는 서울 사는 김연수金年洙에게 가 1천금을 기부받아 땅값을 치르고 금재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 때 최병심은 이원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광복 후에 이원보가 친일파로 규정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이원보는 자신의 마음은 친일에 기울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최병심이 이 소식을 듣고 서울에 가 이원보가 했던 행적을 그대로 말해주어 이원보가 무죄로 풀려났다.

이 일을 두고 세간에서는 '금재가 친일파를 두둔하고 옹호했다.'고 했다. 경와는 이 소문에 대해 직접 금재에게 물었고 금재로부터 '당시 대서인 두 사람이 모의해서 날인을 위조해서 밭값을 횡령했고, 또 자기들 이름 앞으로 해놓았는데 이원보가 실정을 알고 되돌려 준 것이다. 이원보는 이 일을 자기가 한 일이라고 했고 또 이원보와 대면하지도 않았다.'라는<sup>172)</sup> 대답을 받아냈다. 경와는 이 내용을 일기에 그대로 기록하였고, 후에 익산 김제 태인 등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캐물어가며 실증하고자 하였다.<sup>173)</sup> 이 사실을 재정리하면서 '우리 선사께서는 이미 먼저 은혜를 입고 그것을 갚은 의리가 있으니 다만 이 사실만으로 한결같이 대답하였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인의를 해치는 것이겠는가, 도가 크고 덕이 두터우면 인이 지극하고 의리가 정하면 진실로 못 사람들이 그 도를 잘 알지 못함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sup>174)</sup>고 하였고 이 일이 금재의 절조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하였다.

선생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선대의 땅을 지켜낸 일은 그 절조 높기가 마치 태산과 같고 의리의 밝음이 해나 달과 같다....(중략)...우리 삼천만 동포들이 각각 그 志節을 선생처럼 지키고, 각각 그 田地를 선생처럼 보전했다라면 저 슌 왜놈들이 처음부터 우리 대만을 들어오지도 못했을 터이고 또한 와서 살지도 못했을 것이며 우리 대만에 경술년 치육도 없었을 터이다.<sup>175)</sup>

금재가 이원보 재판에 나아간 것은 보은하는 행위였고, 땅을 굳건히 지키려고 했던 것은 '오랑캐로부터 자신의 땅을 지켜내고, 조상의 혼이 들어 있는 땅을<sup>176)</sup> 내어줄 수 없는 지조'를 보인 행위라고

172) 『순산일기』 1954년 9월 26일.

173) 박인규, 『誠堂私稿』 권4, <韓田事實追錄>, 余使嚴命涉 更求益山萬頃金堤泰仁諸門人家 而竟不得而歸.

174) 『경와사고』 4, 잡저 <先師宅田舊復願未記略>

175) 『금재문집』, 『附錄』, <題韓田事實追錄後>, 先生死守先塋之事 其節高等泰山 其義明并日月 先生眞可爲百世師矣 惟我三千萬同胞, 各守其志節 皆如先生焉 各保其田地 皆如先生而不已焉 則悍彼倭奴自初不得入吾韓 終亦不得尊居 而我韓必無庚戌之恥辱矣.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와는 스승 금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衛護的 태도와 실천을 견지하였다. 그의 이러한 행적은 스승에 대한 제자로서의 예를 다하고 스승을 존중하는 태도를 몸소 보여줌으로써 향촌의 예법 질서를 확립하고 동문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낸 것이다.

### 3) 위우(爲友) 활동

경와의 교유를 살펴볼 때, 誠堂 朴仁圭, 立窩 金鍾淵, 醉石 李殷衡, 翠軒 李相寧, 俛窩 李道衡 등이 있다. 이들은 『경와일기』에 꾸준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스승 금재와 관련한 일을 추진할 때 두루 묻고 함께 논의하는 때에 언급되고 있다. 일찍이 경와는 금재에게 ‘선생님 문하에서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당시 금재는 ‘문필로는 이도형이 제일이고, 박인규가 저술에 능하다.’고<sup>177)</sup> 대답한 적이 있었다. 경와의 교유는 이에 힘입은 바가 큰 듯하다.

이 중 성당 박인규와 가장 친밀했고 상호 신뢰가 강하였다. 박인규는 1976년 경와를 전주 구강재로 불러들여 전주 향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자신의 문집 정리 및 간행과 스승이었던 우당 문집 습유 간행하는 일을 마무리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금재 문집을 정리·간행할 때 경와는 박인규와 함께 금재의 원고가 옥류동 밖으로 나가는 데에 극력 반대했고, 문집 간행 위한 통문에서 ‘節義巨室’이란 글자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으며, 금재를 衛護하는 일도 함께 했다. 박인규는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의 글을 정리하여 문집 간행 준비를 하고 있었고, 1976년 초부터 경와에게 원고 정서를 부탁하였다. 1976년 윤8월에는 誠堂私稿를 일차적으로 교열, 정리하였다. 1976년 10월10일 박인규 사후 곧바로 성당사고 편찬, 간행에 착수하였다. 1976년 11월에 私稿 재교열을 마쳤고 그 외 박인규가 주고 받았던 서신을 검토하여 가려내 뽑는 일을 하였다. 입와 김종연과 함께 印刊 관련 일들을 결정하고, 1976년 11월 말경 인쇄에 들어갔으며 12월에 출간되었다. 박인규가 10월에 별세하고 12월에 성당사고를 출간한 것을 보면 매우 신속하게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박인규 생전에 원고를 많이 정리한 이유도 있지만 박인규에 대한 친구로서의 우정 및 배려, 정서가 없었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당 김용승 문집 간행은 경와가 친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우당문집은 그의 제자였던 박인규가 맡아 추진하고 있었다. 우당은 평생 저술한 것을 모아두었고, 그것을 동강東岡이 교열했고 1942년 박인규가 그 문집에 서문을 썼고 이 때에는 『우당선생문집』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이 잃었고 이후 박인규는 우당의 글들을 다시 모아 정리하였고 경와는 이를 도와주었다.<sup>178)</sup> 이 때에는 보조역할에 그쳤다. 박인규는 이 작업을 마치지 못했고 뒷일

176) 이상호, <금재 최병심의 학문과 사상> 『간재학논총』 제10집, 2010.

177) 『순산일기』, 1957년 6월 12일.

178) 우당 김용승 문집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경위는 김종연과 김대중이 쓴 글에 짧게 드러나 있다. <尤堂先生文集拾遺>平生所著之書充溢篋箱 東岡金丈亦嘗校閱矣 庚寅亂沒入熾攸故門人朴仁圭 與嚴命涉 經年蒐輯 各家散在者 不滿一局...先生次允大中甫業欲錄梓 積年沈病未遂其志 仁圭遂已不淑 其允鍾益刊其父遺集畢 亦體其父晚年耿耿在師稿未印 另出印費以續父意.

김대중, <先考尤堂府君家狀> 府君所著文 不肖與朴仁圭蒐輯者十有餘卷 又有雜錄二卷 未克登梓 而失於庚寅兵燹 極天窮地之痛孰可乎此 不肖之罪孰大乎此.

을 경와에게 부탁했다. 1976년 10월 1일에 ‘성당이 부탁한 김우당문집습유 수집하는 일로 구강재에 유숙했다.’고 하였고, 10월 6일 기록에 ‘성당이 우당선생문집습유 수집일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박인규는 10월 10일에 별세했다. 박인규는 죽기 직전까지 스승이었던 우당의 글을 모아 문집으로 만들고자 했다.

경와는 박인규의 부탁을 받고 성당사고 편찬, 인간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당의 글을 수집하여 문집 습유 엮는 일을 진행했다. 박인규가 보던 책들을 정리하면서 우당 김용승이 지은 시집을 발견하였고,<sup>179)</sup> 우당의 글이 있다는 김재 용지에촌으로 가 묘소에 올라 우당이 쓴 ‘참봉묘비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다른 이가 전해준 시를 검토한 다음 문집에 넣었고<sup>180)</sup> 세심함도 보여주었다. 또 우당의 아들 정와 김대중에게 가서 <우당시집> 2책이 확실히 아버지가 지은 작품인지 확인하는 일까지 했다. 이러한 태도는 일찍이 스승 금재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일찍이 금재는 문집 편집 및 印刊의 정밀함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김창협이 농암집이 매우 정밀하게 검토되어 겹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집도 그렇게 印刊되기를 바랐었다.<sup>181)</sup> 경와는 이 말을 일기에 기록해 놓았고 그런 만큼 문집 정리, 출간에 관해 스승의 지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또 경와는 우당의 문집 습유를 내기 위해 그 자식인 정와 김대중을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1977년 2월 5일 서울에서 김대중을 만나 기존에 있던 시집이 확실히 우당 것인지 확인했고, 6월 27일에는 행장, 비갈 등을 논의했으며, 9월 3일 김대중으로부터 <尤堂先生家狀事實>을 받고서, 9월 7일에 서울로 가 다시 논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77년 12월에야 입와 김종연이 쓴 서문, 경와가 발문을 합하여 『우당선생문집습유』를 출간하였으며, 즉시 김대중에게 보내 그의 아버지 문집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우당선생문집습유』 출간은 본디 경와의 책무는 아니었다. 절친했던 박인규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작고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신뢰를 지켰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간재를 사숙하고, 간재의 적통이라고 여겼던 금재를 사사한 경와가 우당의 문집을 인간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였다. 우당은 경와의 스승도 아니었고, 간재의 문하인도 아니었으므로<sup>182)</sup> 체자로서의 책무나 동문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몸소 우당의 습유를 印刊하는 데에 몰두했던 것은 동문인 박인규의 간곡한 부탁을 저버리지 않았던 때문이다.

이처럼 경와는 절친했던 동문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그들의 문집을 편찬, 印刊하는 일을 맡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성당사고』는 금재의 체자였던 박인규의 학문을 드러냈고, 간재-금재-성당으로 이어지는 간재 학맥의 한 면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우당문집습유』를 펴내

179) 『경와일기』에는 우당의 문집 간행 일에 대해 정와 김대중의 말을 기록한 것이 있다. 즉 박인규가 우당의 글을 모아 간행하는 비용 6만원을 요구해서 가져갔고, 문집습유 인쇄비 4만원을 요구하여 주었다고 했으며 이 때 인쇄기는 전북대 인쇄관을 쓰고, 100질 한정하여 출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김대중은 엄명섭에게 ‘성당사고 인쇄할 때 우당의 문집 습유도 동시에 인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경와일기』, 1977년 2월 5일.)

180) 『경와일기』, 1976년 11월 8일.

181) 『순산일기』, 1948년 4월 24일.

182) 우당과 간재가 만나 대화한 다음 간재가 우당에게 ‘자네는 울곡이고 나는 퇴계이며, 자네는 주자이고 나는 연평이다.(子爲栗谷 我爲退溪 子爲朱子 我爲延平)’라고 비유하였다. (<先考尤堂府君家狀>). 또 그 아들 김대중은 成璣運에게 쓴 편지에서 ‘아버님은 간재 문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순산일기』, 1950년 9월 3일)

어 우당 김승용의 학문 및 문학 세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문집은 구한말, 일제강점기, 해방기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긴 시간 속에 존재하는 한국 유학의 맥락이나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친구를 위한 경와의 노력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 4. 나가는 말

이상과 같이 경와가 향촌에서 활동한 일들을 살펴보았다. 경와는 조선 전통식 교육인 서당 교육에 대한 감시와 억압이 심엄하던 시기에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 향촌의 아동 및 젊은이들을 교육했고 이는 당시 일본의 교육 정책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방 이후 현대에도 향교에서 전통 교육 방식으로 유교 경전에서부터 천자문까지 한문 및 유교와 관련한 내용을 가르쳤다. 이는 전통적 학문 및 문화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것을 번역하여 현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또한 스승 금재를 위해 문집 및 사우를 건립하면서 금재의 절의 정신을 부각하고 그것을 보위하여 율곡-우암-간재-금재의 학맥을 드러내고 공고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과 다른 의도 및 의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스승을 위호하는 역할의 선두에 섰다. 아울러 동문의 문집을 간행하고 그의 스승 문집까지 간행하는 데에 노력했는데 이는 간재 학맥의 건실함을 보여주고, 구한말에서 현대에 이르는 기간 속에 존재하는 한국 유학 및 간재 학맥의 여러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형목, <일제강점 초기 개량서당의 기능과 성격>, 『사학연구』, 78, 2005. 231-265  
이규필, <근현대 고전번역에 대한 일고찰>, 『고전번역연구』2, 한국고전번역학회, 2011, 7-59.  
이은혁, <경와 엄명섭의 학문과 간재사상의 이해>, 『한문고전연구』33,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383-412.  
이상호, <금재 최병심의 학문과 사상> 『간재학논총』제10집, 2010, 273-320.  
魯平奎 (2011) 欽齋崔秉心の 經世思想, 간재학논총, 11, 173-203

2019 문헌세가 학술대회

## 근현대기 호남유학자의 강학활동

-敬窩 嚴命涉-

---

일 시 2019년 12월 20일

발행처  **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Tel. 062-603-9600 Fax. 062-941-6705

<https://www.hiks.or.kr/>

---

※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19 호남한국학 진흥지원 사업(문헌세가 자료집 성)”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며, 여기에 실린 내용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